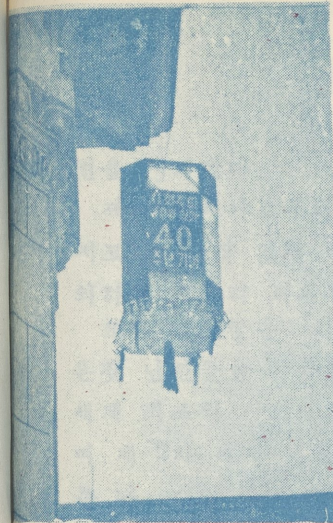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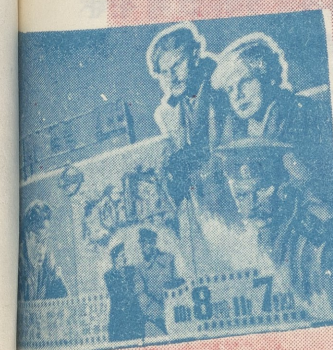
1957.11

10월 혁명이 승리한 날 쏘베트 정권을 선포하는 레닌

———— ◇ ————

앞표지‥쏘련 삐오네르들과 한자리에서……김 창규 촬영

소년단 제11호 내용

조 쏘 — 10월 혁명 40주년 기념 만세! — 친 선

세계는 10월의 기'발을 따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위대한 레닌과 쏘련 공산당의 령도 밑에 로씨야에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하였다.

10월 혁명은 지주, 자본가들의 정권인 짜리 정권을 타도하고 세계의 6분지 1를 차지하는 땅 우에 지금까지 있어 보지 못한 새로운 정권인 로동자, 농민의 나라 쏘베트 정권을 수립하였다.

로씨야에 로동자, 농민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소식은 전 세계의 압박받고 착취받는 근로 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새 힘을 돋구어 주었다.

세계 근로자들은 자기의 머리 우에 들씌워지고 있는 지주, 자본가들의 억압과 착취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오직 로씨야의 로동자, 농민들 처럼 용감히 싸워야 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으며 자기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10월 혁명이 있은 그 때로부터 세계에는 지주,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쏘베트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혁명 투쟁이 폭풍 같이 일어났다.

10월 혁명의 모범을 받아 벌써 10월 혁명 직후인 1918년부터 1920년 기간에만 하여도 독일, 오지리, 웽그리야, 핀랜드, 영국, 불란서, 이태리 등 큰 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은 지주,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전에는 볼 수 없던 광범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0월 혁명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돋구어 주었다.

10월 혁명의 모범을 받아 당시 식민지 예속 국가로 있던 조선, 중국, 인도, 아프카니스탄 등 나라들에서 민족적 독립을 위한 광범한 투쟁이 전개되였다.

10월 혁명으로부터 오늘까지 40년이라는 극히 짧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이 기간의 세계 력사는 위대한 일들로 가득차 있다.

이 기간에 쏘련 인민들은 실로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쏘베트 정권을 지켜 냈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고 쏘련을 오늘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었으며 오늘은 공산주의를 눈앞에 바라보게 되였다.

10월 혁명에서 갓 생겨난 쏘베트 정권을 없애 보려고 달려 든 타도된 로씨야의 지주, 자본가들과 14개에 달하는 외국 군대의 침략을 반대하는 공민 전쟁에서 쏘련 인민들은 영웅적 투쟁으로 쏘베트 정권을 지켜냈다.

짜리 로씨야로부터 물려 받은 낡아 빠지고 보잘 것 없던 산업마저 공민 전쟁에 의하여 모조리 파괴되였다.

쏘련 인민들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온갖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혼자의 힘으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냈으며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입은 심한 피해를 단 시일 내에 회복하고 지금 공산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쏘련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구라파와 아세아에는 새로운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이 탄생하였다.

사회주의는 제 2차 세계 대전 전까지 지구의 약 17%의 땅에서 세계 인구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오늘에 와서는 지구의 약 26%의 땅에서 세계 인구의 약 35%를 차지한 불패의 힘으로 자라났다.

위대한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위력의 장성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세계 인민들의 투쟁에 큰 힘을 주었으며 그 승리를 고무하고 있다. 그리하여 제 2차 세계 대전 후에 인도, 비르마, 인도네시아, 애급, 씨리야, 수단, 튜니샤 등 아세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처지를 벗어나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였다.

비단 이 나라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은 아니지만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10월의 기'발을 따라 전진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세계에는 15억의 인구를 가진 사회주의 국가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를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 있다.

10월 혁명 전에 로씨야에는 공산당원이 25만명을 넘지 못하였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공산주의자에 가까운 적은 그루빠들이 있었을 뿐이였으나 오늘에 와서는 세계 각국에 3천 3백 여 만에 달하는 공산 당원들이 있다.

이 것은 전 세계가 위대한 10월의 기'발을 따라 미래의 행복과 희망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렇듯 오늘 세계는 10월의 기'발을 따라 전진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오늘 10월의 기'발을 따라 전진하는 세계 인민들의 발굴음 아래 짓밟히여 날로 죽어 가고 있다.

조선 인민들은 벌써 10월 혁명 직후부터 진정한 애국자들의 지도 하에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10월의 기'발을 우러러 왜놈들을 반대하여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념원은 쏘베트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쏘련은 조국의 민주주의적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항상 사심 없는 원조를 주었으며 또 주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 인민이 달성한 모든 성과와 오늘 조선 인민이 누리고 있는 행복 그 어느 하나가 쏘련 인민들의 진정한 국제주의적 원조와 련결되여 있지 않는 것이 없다.

만일 10월 혁명에서 탄생한 쏘련이 없었더라면 조선 인민은 아직 왜놈들의 발굽 아래에서 해방되지 못 하였을 것이며 공화국의 품 속에서 누리고 있는 오늘과 같은 행복은 생각조차 못 하였을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은 항상 위대한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속에 삶을 무한한 행복으로 여기며 위대한 쏘련을 향하여 배우며 쏘련·인민과의 친선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있다.

◇ 박 시 협 ◇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을 맞는 조선 인민의 가슴 속에는 해방의 은인이며 우리의 통일 독립을 진심으로 원조하여 주는 위대한 쏘련 인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벅차고 있습니다.

10월 혁명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쏘베트 군대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지금으로부터 열두해 전에 우리 조국 땅에서 몰아내였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던 로동자, 농민들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였습니다. 암흑한 생활 속에서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보던 근로자들의 아들 딸들은 마음껏 공부를 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쏘련 군대가 조선에 진주한 첫날 우리 조선 인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다음과 같은 고마운 성명을 발표한 것이 기억에 떠 오릅니다.

《조선 인민들이여!… 조선은 자유국이 되였다. 그러나 이 것은 오직 새 조선력사의 첫 페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노력과 고려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 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노력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 ……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로력에 착수할만한 모든 조건들을 지어 주었다.…… 행복된 조선 인민 만세!》.

이 것은 의로운 해방군—쏘베트 군대의 첫 인사였습니다. 이 것은 조선 인민에 대한 쏘련 인민의 형제적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또 새 생활을 꾸미는 길에 들어선 조선 인민에 대한 쏘련 인민의 진심으로 되는 목소리였습니다.

해방 첫날부터 조선 인민에 대한 쏘련 인민의 원조는 변함 없이 계속되여 왔습니다.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여러 감옥에서 애국자들이 철창을 박차고 뛰여 나와 서로 얼싸 안고 만세를 부르던 감격도 새롭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방방곡곡에서 쏘베트 군대를 친 형제와 같이 열렬히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을 꽃다발로 둘러쌌으며 거리마다 붉은 별 반짝이는 해방탑을 세워 위대한 은공을 영원히 기념하였습니다.

농민들은 기름진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고 로동자들은 인민의 공장에서 마음껏 즐거운 로동을 하게 되였습니다. 또 어린이들은 처음으로 우리 나라의 자랑찬 력사와 지리를 배우게 되였고 조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자로 자라게 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쏘련 인민은 우리 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여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 주고 훌륭한 나라를 세우는 일을 도와 주었습니다. 또 기술을 배우지 못한 로동자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같이 일하였으며 공장과 도시를 복구하는 일도 도와 주었습니다.

쏘베트 군대는 소년들과도 친근한 벗이였습니다. 그리하여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친선의 이야기를 남겨 놓았지요. 인민학교 3학년 국어책에 나오는 뻬뜨로브 아저씨의 이야기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또 청진 해방 싸움에서 일본놈들의 가슴에다 반땅크 수류탄을 던져 놈들을 무수히 죽인 쏘련 영웅 이. 야로쯔끼의 용감한 이야기도 소년단 잡지에서 읽었을 줄 압니다.

위대한 쏘련 인민은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도 날강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여 싸우는 조선 인민들을 진심으로 원조하였습니다. 쏘련 인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선참으로 《미제는 조선에서 피묻은 손을 떼라!》고 힘찬 목소리를 웨쳤으며 우리의 식량 사정이 곤난하던 때에 밀가루 5만 톤을 보내 주는 등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성의껏 도와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지가지의 원조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선 인민이 승리하는 데 큰 힘이 되였습니다.

조선 인민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제놈들에게 파괴 당한 도시와 농촌들을 복구건설하기 시작하였을 때 쏘련 인민들은 또 10억 루블리의 원조를 주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기술자들을 보내여 더 빨리 인민 경제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이 원조의 결과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기둥으로 되는 김책 제철소, 성진 제강소, 수풍 발전소, 흥남 비료 공장들을 비롯한 대공장들과 문화 시설들이 단시일 내에 복구 신설되였고 또 되고 있습니다. 쏘련 인민이 보내준 뜨락또르와 선진 농기구들은 우리 농촌의 급속한 발전에 커다란 도움으로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했을 때 쏘련 정부는 또 다시 많은 원조를 주었습니다.

쏘련 인민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항상 지지하여 왔으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쏘련은 조선 인민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물심 량면으로 지지 성원해 주었으며 조선 인민의 진정한 벗으로 되여 왔습니다. 위대한 쏘련이 있음으로하여 오늘 우리의 행복도 빛나는 앞날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 조선 인민들은 해방의 은인이며 진정한 벗인 쏘련을 절대 지지하고 있으며 항상 쏘련을 향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쏘련이 우리에게 준 그 은혜는 영원히 조선 인민의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기념을 맞는 조선 인민들은 해방의 은인이며 진정한 벗이며 원조자인 쏘련 인민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영예를 드립니다.

10월의 기발 우러러

◇백 학 림◇

의좋게 공화국기와 쏘련 국기가 휘날리는 거리를 조국의 꽃봉오리들인 소년 소녀들이 붉은 넥타이를 펄럭이며 걸어 간다. 그들이 부르는 10월의 노래는 아름다운 거리거리에 울려 퍼진다.

행복에 겨운 이 소년 소녀들을 볼 때, 나는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의 한 전사로서 싸운 지난 날의 그 어렵던 투쟁을 회상하면서 나의 어린 시절의 용감하고 혁명적인 소년 소녀 애국자들을 또한 회상하게 된다…

내가 아동 혁명단원이 된 것은 동북 연길현의 벽촌인 8구 부암 학교라는 조그마한 사립 학교에 다니다가였다.

조국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서 어떻게 투쟁에 나선 부모들과 무장 자위대를 도와 싸울 것인가에 대하여 듣고 우리들은 주먹을 쥐고 싸움에 나설 것을 결심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아동 혁명단원이 되였던 것이다.

그 때 만주는 일제에 강점되여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압박은 더욱 심하였다. 그러나 일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로동자, 농민의 투쟁은 그보다 더욱 높아갔다.

우리는 분단에서 선생님의 지도 밑에 《우리의 원쑤는 누구인가》《우리는 왜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쏘련, 레닌, 10월 혁명 등 유익한 이야기를 들었다. 10월 혁명이 승리한 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부모들을 도와 주는 붉은 넥타이를 맨 쏘련 삐오네르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얼마나 흥분시켰는지 모른다.

아동 혁명단원인 우리들은 적극 일하기 시작하였다. 투쟁에 나선 부모를 도와 농사 짓는 일, 적들의 습격에 대한 망을 보는 일, 행상아로 가장하고 유격대에 심부름 가는 일 그리고 적들의 형편과 수상한 앞잡이들을 알아 내는 일… 이 모든 일을 우리들이 맡아서 하였다.

항일 유격 부대들이 도처에 불의에 나타나서 적들을 무찌르게 되자 놈들은 유격대와 련락한다는 구실 밑에 마을을 불살라 버리군 하였다.

아동 혁명단원인 김 순회가 살던 부락에서였다. 놈들은 부락 사람들을 그 불속에 몰아 넣으면서 유격대가 있는 곳을 대라는 것이였다. 그러나 총탁에 맞고 날창에 찔리우고 불 속에 밀려 들어 가면서도 아무도 유격대의 근거지를 대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승리할 앞날을 믿고 있었다.

이 속에 김 순회의 어머니도 들어 있었다. 김 순회는 놈들의 총창에 매달려 《개놈들, 너희들은 우리 어머니를 죽일 수 없다. 아버지가 간 곳을 댈 수 없다》고 웨치면서 놈들을 가로 막았다. 놈들은 김 순회마저 총창으로 찌르며 불 속에 밀어 넣었다. 그는 쓰러지면서도 《혁명 만세!》를 불렀다. 그는 아동 혁명단에서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던 동무였다.

그 후 우리 아동 혁명단원들이 유격 대오에 참가하여 선배들의 뒤를 따라 싸우게 되였을 때 이런 일도 있었다. 그 때 우리는 북만 유격 근거지에서 싸우고 있었다.

아동 혁명단원인 강 정해 소년은 일제 수비대장의 심부름'군으로 끌려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똑똑하고 중국 말을 잘 한다고 붙잡아 간 것이다. 강 정해는 아동 혁명단 동무들과 떨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곳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므로 강 정해는 먼저 놈들한테 잘 뵈여 신용을 얻은 다음 빠져 나갈 기회를 엿봐야겠다는 것을 생각하였다. 강 정해는 일제 수비대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듯이 놈들이 시키는 대로 장작도 패고 물도 긷고 소제도 심부름도 날쌔게 해 치웠다. 이리하여 놈들의 귀염을 받게 된 강 정해는 토벌을 떠날 때면 어디로 가느냐 그 곳은 얼마나 머냐를 물을 수 있게 되였다.

이러면서도 그는 놈들의 무기고며 보초소며 창고, 인원, 군호며 놈들의 움직임을 살펴 두었다.

이런 가운데 강 정해는 수비대장의 술 심부름을 하게 되였다. 그는 놈들이 술에 취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벗어 놓은 놈들의 무기를 걸어 가지고 가만히 수비대를 벗어나 유격대에 돌아 왔던 것이다. 강 정해는 이렇게 아동 혁명단 전우들을 잊지 않았다. 그는 유격대에서 기관총수가 되였고 나중에는 소대장으로서 용감히 싸웠다.

우리 유격대원들은 대부분이 적들과 싸우면서 자기 부모와 형제를 잃었거나 멀리 떨어져 생사도 모르는 형편이였으나 김 일성 원수를 중심으로 집안 같은 따뜻한 사랑과 우정으로써 항상 뭉쳐져 있었으며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었다. 그러면서도 항상 엄격한 군사 규률을 지켰던 것이다.

우리들은 적들과의 판가리 싸움 속에서도 학습을 잊지 않았다. 로씨야 로동자들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이 주인으로 된 나라,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

지 않는 나라를 세운 10월 혁명에 대한 학습은 우리에게 백배 천배의 용기를 주었던 것이다. 지금도 김 일성 원수께서 전투와 행군의 휴식 시간에 들려 주던 쏘련의 영웅인 차빠예브에 대한 이야기며 이와 함께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가르침은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학습과 위대한 쏘련의 사회주의 건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어려운 투쟁 속에서도 승리를 믿었으며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것은 일제를 소멸하고 그 앞잡이들을 없애 버려야만 쏘련과 같이 자유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였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련 사흘이나 행군하여도, 발고랑 하나 볼 수 없는 밀림 속에서 굶주림과 싸우면서도 목적지까지 가 닿은 일이며 원쑤 격멸을 위한 무거운 무기와 짐을 져서 어깨가 낮아지는 수백수천 리 행군이며 수많은 난관을 이겨 내면서 끝까지 싸웠던 것이다.

어려운 고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나 승리의 기쁨은 더 많았다. 그 것은 김 일성 원수의 기묘한 전술에 의하여 토성파는 요란한 소리로써 적들을 항복시키던 일이며, 추격하여 오는 원쑤들을 벼랑에서 마중하여 거의 오를 때 바위를 굴리고 모래를 뿌려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총탄을 몰부어 승리의 기'발을 올리던 구시산'골 전투도 잊혀지지 않는다.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은 김 일성 원수를 따라 1937년 6월 4일에 참가한 보천보 전투였다.

우리 유격대가 적은 수'자로 적들보다 준비되지 못한 장비를 가지고서도 항상 넓은 지역에서 싸울 수 있은 것은 오직 10월의 기'발을 우러러 보면서 김 일성 원수의 지도에 의하여 인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 싸운 까닭이였다. 김 일성 원수의 지휘 하에 무송을 거쳐 장백에 이르러 조국에 접근한 지역에서 우리의 대오는 더욱 확대되였고 그 후 새로운 정세에 맞는 기습 소조 투쟁을 걸쳐 영웅적 쏘련 군대와 더불어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 해방을 가져 오게 하는 인민의 투쟁의 홰'불로 되였던 것이다. 이모든 것이 10월의 기'발 밑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물론이다.

회상하면 끝이 없다.

인민군 대오에서 조국의 평화를 지키고 서 있는 나는 소년단원 동무들이 10월 혁명의 승리에 고무되면서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우리 나라 참된 애국자들이 투쟁해 온 일을 연구하며 위대한 쏘련의 모범을 배우면서 학습에서나 소년단 생활에서 보다 더 모범이 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 항상 준비될 것을 바라는 바이다.

레닌과의 상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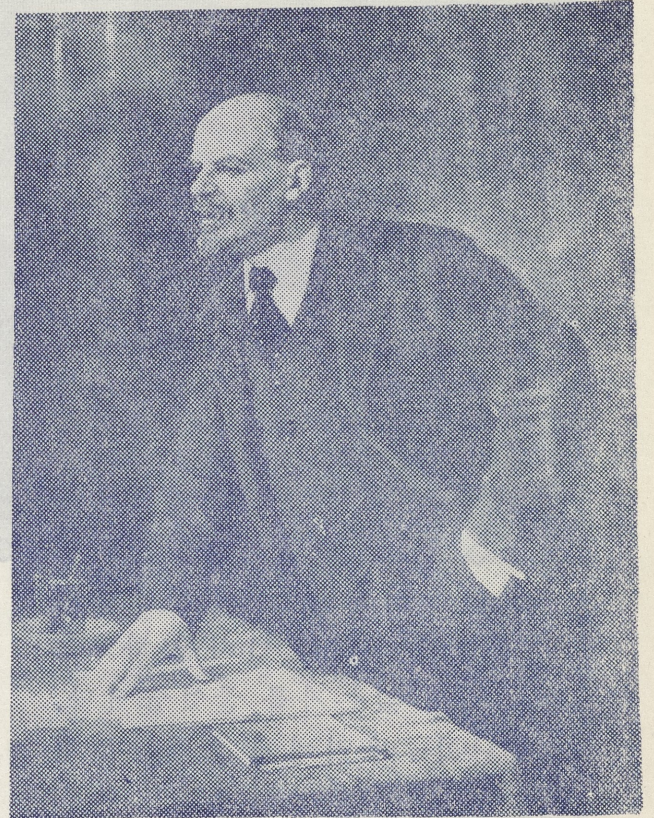
◇예까쩨리나 라꼬바◇

위대한 10월의 포성이 울리기 시작하였을 때 우리들은 뻬쩨르부르그 로동 청년의 대표자로서 무장 폭동에 참가하여 볼쉐위크들의 투쟁을 도왔습니다. 우리들은 전투에서나 위생대에서나 순찰대에서 늘 앞장에 설 것을 열망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혁명의 승리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기뻐하면서 참가했습니다.

10월 혁명이 승리한 후 나는 다시 자기 일터로 돌아와서 첫 쏘베트 무전수로 되였습니다.

1919년 2월이였습니다. 전화 교환국 위원이 나를 부르더니 내가 크레믈리에서 통신 사업을 지도하게 되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통신 인민 위원장 뽀드벨스끼 동지를 만났습니다.

《동무는 레닌의 사무실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동무에게 중대한 책임을 맡깁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하고 통신 인민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눈 오는 겨울 날에 나는 크레믈리의 세대문으로 갔습니다. 통행증은 이미 나에게 있었습니다. 숨 쉴 사이도 없이 나는 레닌의 사무실 옆 3층에 있는 교환국으로 올라 갔습니다. 레닌의 비서 리지야 포찌예바가 나를 맞아 주면서 내가 온 것을 곧 레닌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위대한 분과 이야기할 것을 생각하니 대단히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바로 그 때 레닌이 들어 왔습니다. 레닌은 대단히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자 레닌은 내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 명철하고 선량한 눈매로 나를 바라 보며

《동무는 전화 교환국에서 오셨소?……그럼 좋소, 일을 시작합시다》하고 미소를 띄였습니다.

◇ 토요 로동에 참가하신 웨. 이. 레닌 ◇

레닌은 아침마다 우리 전화실에 들려서 우리와 인사를 하고는 새 소식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레닌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우리는 항상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레닌은 《앉으십시요》하고 늘 친절하게 이야기하군 하였습니다.

레닌은 우리의 사업을 특별히 존경해 주었습니다. 이 것은 우리들에게 맡은 일을 책임성 있게 해 내도록 힘을 돋구어 주었습니다.

레닌이 우리에게 가져 오는 필기 전화 원문은 모두 자신이 쓴 것이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원문을 읽을 것을 권하군 했습니다. 《알만 하오? 전부 알겠소? 만일 모르면 사양 말고 물으십시요!》하고 레닌은 자주 말하였습니다.

레닌은 우리들이 사업을 기계적으로 하지 말 것을 원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작은 잘못이라도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사람들을 레닌께로 부를 임무를 맡았습니다. 레닌의 지시에 의하여 전화국에는 다음 날 할 레닌의 모든 위임을 적어 두는 석판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종종 레닌은 백묵을 쥐고 자신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동무를 ×시에 통과시키시요》《×××동무를 2시 10분에 나에게 부르시요》.

레닌은 또 아침마다 전화국에 들려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누가 오늘 당번이요? 모든 사람에게 알렸소? 당번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과시키며 또 찾아 온 사람들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화실 당번에게 반드시 타일러 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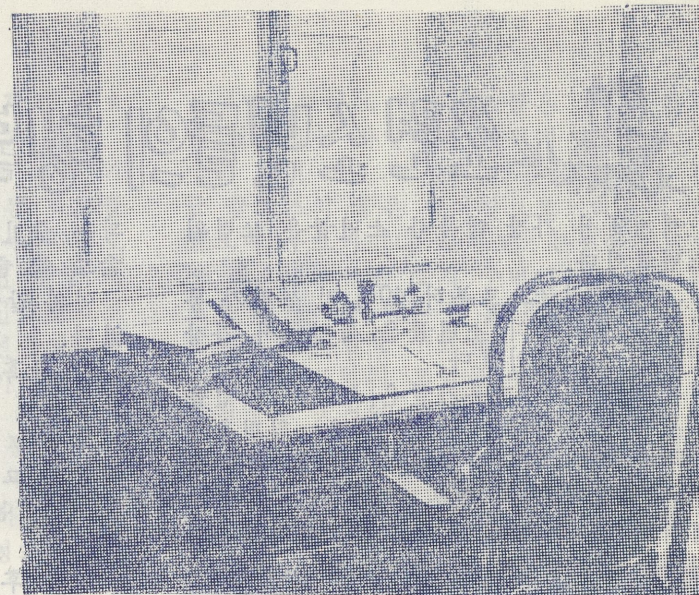
이와 같이 레닌은 모든 사람들이 맡은 어떤 일에나 항상 주의를 돌리였으며 자기의 시간과 남의 시간을 대단히 아꼈습니다.

레닌은 모든 일을 정확하고 규률 있고 참을성 있게 하도록 교양하였습니다. 이런 교양을 주는 일도 우리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도록 아주 다정하게 그리고 솜씨 있게 하였습니다. 레닌은 우리 일'군들을 몹시 아꼈습니다.

우리 무전수들 가운데 한 녀자가 딸을 낳았습니다. 어린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잘 가지 않아서 어머니는 일할 때에도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전화국 벽에는 흔들이가 있는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처녀애를 보이지 않게 시계 밑에 눕혀 놓았습니다. 처녀애는 흔들리는 시계 추를 바라 보며 까딱 소리 없이 조용히 놀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계가 멎었다고 그런지, 무엇을 달라고 그러는지 자주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놀랬습니다. 사실 레닌은 전화국에 갓난애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바로 이 때 레닌이 들어 와서 어디서 아이가 왔는가고 놀래는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모든 사연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레닌은 대단히 주의 깊게 귀담아 들었으며 처녀애가 있는 데로 다가 가서 어머니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틀 후에는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게 되였는데 그 애는 탁아소 생활에 곧 습관되였습니다.

◇ 레닌의 방 ◇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레닌은 나를 불러 놓고 《이 문서를 꼰쓰딴찌노브나한테 좀 가져다 주십시요. 그는 앓고 있으니 베루로써 그를 놀래우지 말고 동무가 문을 여시요. 열쇠는 집에 있을테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레닌의 집에 들어 가서 나는 검박한 가구들을 보고 몹시 놀랬습니다. 현관에는 평범한 천이 깔려져 있었으며 식당에는 단순한 가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레닌과의 나의 상봉이 있은 그 때로부터 2—30년이 지나갔으나 일생 동안 나의 기억 속에는 아주 큰 인간성으로 충만된 위대한 수령의 고귀한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유 희준 역)

쏘련 소년들의 행복한 어린시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소년들은 쏘련의 소년들이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짜리가 통치하던 로씨야의 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소년들이였다.

짜리와 지주, 자본가들은 로동자, 농민을 마소같이 부렸다. 근로자들은 헐벗음과 굶주림 속에 허덕이였다. 그들의 아들딸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없었다. 오직 어려서부터 지주, 자본가들의 채찍 밑에서 노예가 되여 고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러므로 혁명 전 로씨야에서 9세이상 되는 주민 4명 중 3명은 전연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문맹자였다.

모쓰크바시 삐오네르 회관에서 무용을 배우고 있는 소년들.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짜리 로씨야는 암흑의 세상이였다.

이 암흑의 세상에 레닌이 지도한 쏘련 공산당이 10월의 홰'불을 높이 추켜 든 그때로부터 로동자, 농민은 나라의 주인이 되였고 그의 아들딸들에게는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여졌다.

혁명 후 쏘련에서는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여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여도 벌써 쏘련의 학생 수는 혁명 전의 5배를 넘어섰다.

쏘련 공산당과 정부의 따뜻한 품 속에서 소년들의 행복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현재 쏘련에서는 7년제(초중까지) 의무 교육이 실시되여 보통 교육 기관만 하여도 21만 3천 교나 되며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수는 실로 3천만 명이 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 결정에 의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6차 5개년 계획 기간에 10년제(고중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10년제 의무 교육, 이 것은 오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넘도 못낼 일이다. 오늘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10년제는 고사하고 초등 의무 교육제조차 없으며 간혹 있다 해도 그 것은 허울 좋은 이름 뿐이고 근로자들의 아들딸들은 여전히 배움의 길에서 쫓겨나고 모진 로동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쏘련의 기술 교육 기관에서는 2백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데 이 것은 혁명 전에 비하여 약 40 배에 가까운 수'자이다.

특히 오늘 쏘련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수는 구라파의 전체 자본주의 나라들의 대학생수를 합한 것보다 2배나 되는 2백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쏘련에는 여러 가지 교육 기관들이 있는 데 현재 쏘련의 모든 학교들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체 학생수는 실로 5천만 명이 넘는다. 이 것은 쏘련 인구 네 사람 중 거의 한 사람은 학생인 것으로 된다. 이 것만 보아도 쏘련 소년들의 앞에는 얼마나 광활한 배움의 길이 열려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쏘련 소년들의 행복은 이 것 뿐이 아니다. 쏘련 공산당과 정부의 배려에 의하여 쏘련의 가는 곳마다에 야영소, 아동 궁전, 아동 철도, 아동 극장, 아동 영화관, 아동 도서관, 아동 운동장, 아동 공원, 심지어 아동 부두, 아동 백화점까지 있다.

여기에서 쏘련의 소년들은 장래 훌륭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손으로 실험하며 만들어 보며 마음껏 지식과 재간을 키워 나가고 있다.

이렇게 쏘련의 소년들은 공산당과 정부의 사랑 속에서 명랑하고 씩씩하게 레닌의 위업—공산주의의 훌륭한 건설자로 공청원들과 공산당원의 훌륭한 교대자로 자라고 있다.

쏘련 소년들은 자기들에게 크나큰 행복을 베풀어 준 공산당과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며 쏘베트 정권을 해치려는 자들과 항상 용감히 투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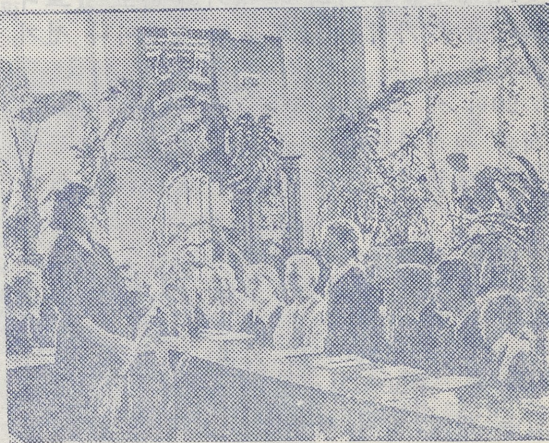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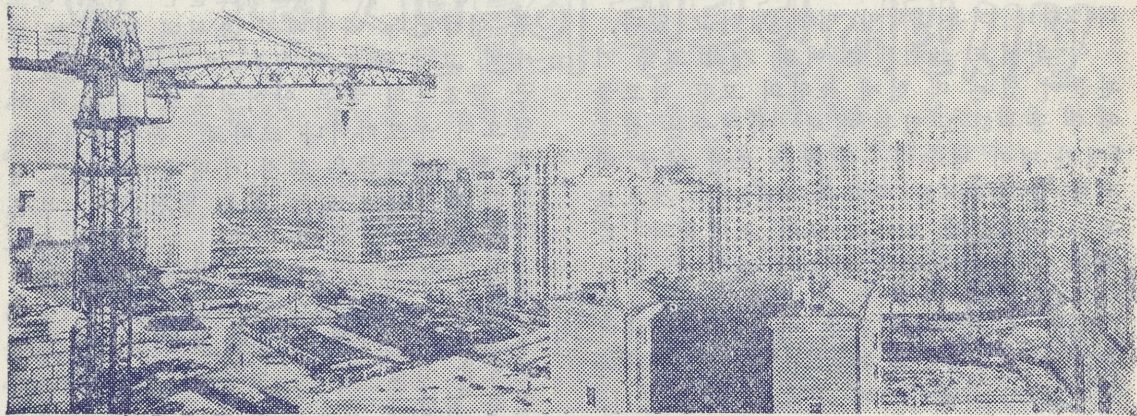
10월 혁명 직후 타도된 지주, 자본가들이 갓 생긴 쏘베트 정권을 없애 버리려고 14개 나라 군대들과 함께 달려 들었을 때 소년들은 부모들을 도와 용감히 싸웠으며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 시기에도 공장, 제조소, 쏩호즈, 꼴호즈 건설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꼴호즈 조직을 위한 투쟁에서 쏘베트 정권을 도와 꿀라크(부농)들과 용감히 투쟁한 삐오네르 영웅 빠블리크 모로죠브의 투쟁과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 후방 가족들을 도운 삐오네르들의 찌므르 운동과 조야와 수라, 마뜨로쏘브의 영웅적 투쟁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오늘 쏘련의 삐오네르들은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하는 한편 부모들의 공산주의 건설을 도와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

쓰딸린그라드 삐오네르들은 자기 향토를 연구하는 사업에서 초원에 있는 한 호수에 고기 사료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부근 꼴호즈의 좋은 양어장으로 리용케 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쓰따로 꼰쓰딴지노브시 삐오네르들은 도시 주변에 린 비료 원료가 매장되여 있는 것을 발견하여 부근 꼴호즈에 도움을 주었다.

위대한 쏘련의 모범을 따라 날로 사회주의에로 꽃피여 가고 있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배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조국을 위한 쏘련 소년들의 슬기롭고 용감한 학습과 투쟁은 항상 훌륭한 모범으로 되고 있다.

쏘련 삐오네르들은 여름을 아주 재미있게 보낸다.

혁명전 지도에 없던 도시의 중학교 학생들이 생물학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쏘련

◇ 오늘의 모쓰크바, 프른 젠쓰까야 강변에 건설되는 주택 ◇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을 맞는 쏘련 인민들은 지금 눈앞에 공산주의를 내다 보고 있다.

오늘 쏘련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현대적 공업을 가진 강한 나라이다.

쏘련 공업 생산량은 혁명 전에 비하여 30배 이상으로 장성하였으며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 제품 생산은 1913년에 비하여 실로 180배로 자라 났다.

쏘련의 전력 생산량은 구라파에서 제1위이며 세계에서 제2 위를 차지한다.

벌써 쏘련에서는 철도와 쏩호즈 뜨락또르 임경소들을 거의 다 전기화 하고 있으며 1960년에 가서는 쏩호즈도 절반이나 전기화한다.

20만 개 이상의 국영 기업소들과 10만 개의 건설장들을 가지고 있는 쏘련의 공업은 기술에서도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 한다.

오늘 쏘련에서는 평균 1초 동안에 생산되는 선철은 1.1톤 강철은 1.5톤 석탄은 13.6톤 석유는 2.6톤을 생산해 내고 있다. 1960년에 가서 쏘련은 영국, 불란서, 서부 독일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강철, 전력, 쎄멘트및 연료를 합한 것 보다 더 많은 량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쏘련처럼 그렇게 원자력이 평화 산업에 광범히 리용되는 나라는 없다.

제6차 5개년 계획이 완수되는 1960년에 가서 쏘련의 공업 생산량은 1940년에 비하여 6.3배로 1913년에 비하여서는 40배로 장성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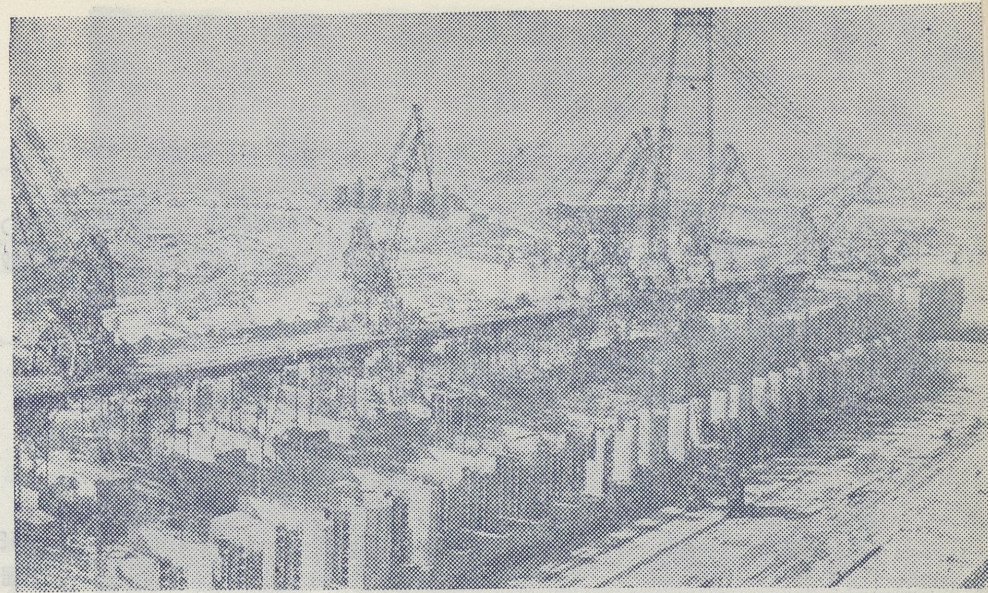
농업에 있어서도 1955년말 현재로 5,134개의 쏩호즈와 85,700개의 꼴호즈에서 157만 7천 대의 뜨락또르와 63만 1천 대의 화물 자동차와 38만 5천 대의 곡물 꼼바인 등300여 종의 농기계들이 사람의 힘을 대신 하여 일하고 있다. 귀밀과 보리 생산은 벌써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축산업에서도 머지 않아 주민 한 사람에게 차례지는 우유와 육류 생산이 세계에서 제1 위를 차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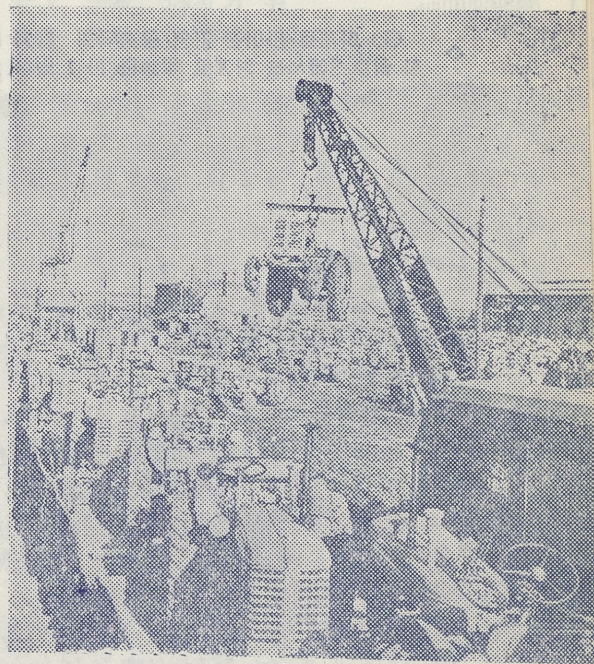
이렇게 오늘 쏘련의 농업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농업으로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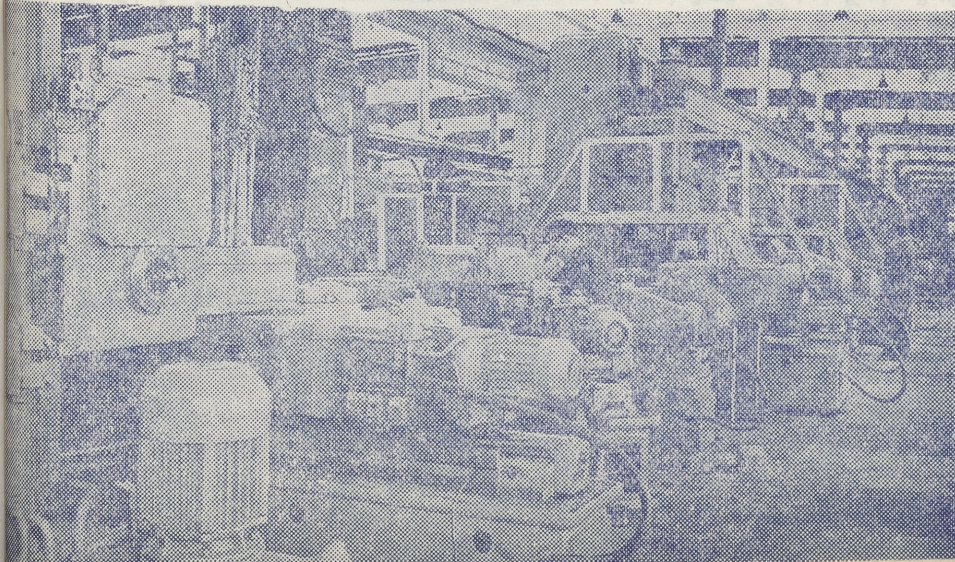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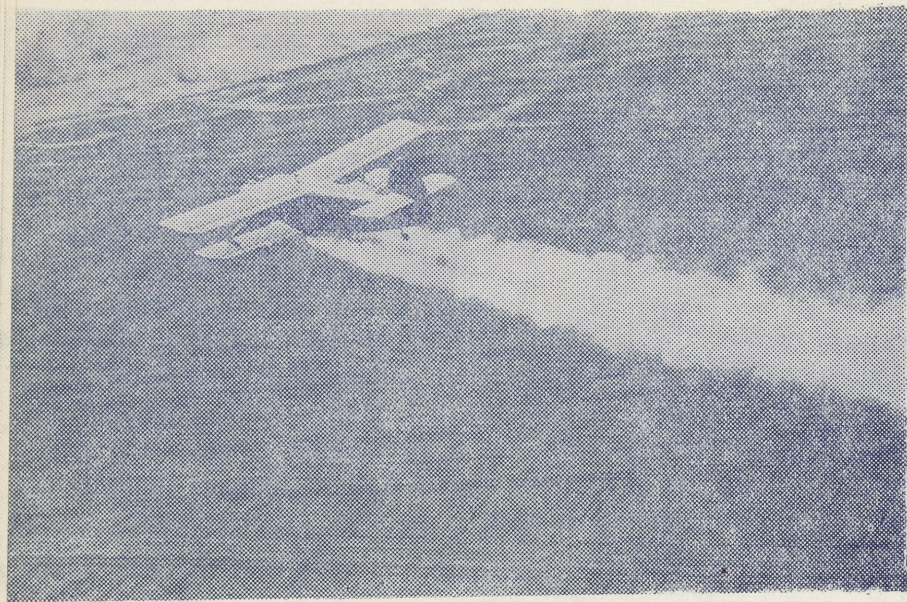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쏘련의 도시와 농촌은 어디를 가나 영화관, 극장, 문화 궁전, 구락부, 도서실, 삐오네르 궁전, 병원 등이 없는 곳이 없다.

혁명전에는 주민 1만명에 의사 한 사람과 침대 13 대 밖에 차례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주민 1만명에 17명의 의사와 70대의 침대가 차례지고 있다.

이리하여 쏘련은 인류의 최고 리상인 공산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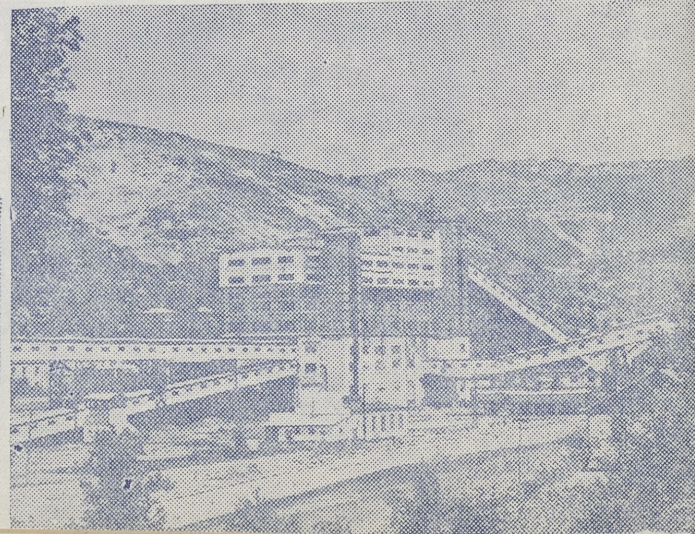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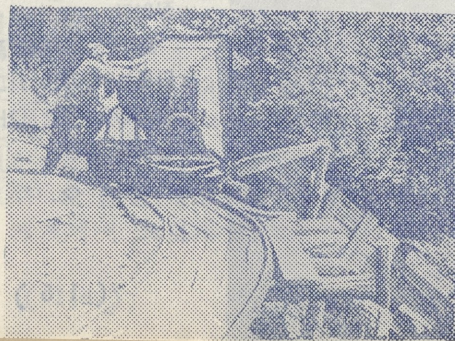
◇ (1) 쓰딸린그라드 수력 발전소 건축 공사장에서 → ◇

◇ (2) 모쓰크바 리하체브 명칭 자동차 공장은 새로운 시내용 뻐스 <질—158>를 많이 만들고 있다. ◇

◇ (3) 민스크의 뜨락또르 공장 로동자들은 날마다 이처럼 수많은 뜨락또르를 농촌에 보내고 있다. ◇

◇ (4) 모쓰크바 오르죠니끼제 기계 제작 공장도 자동화 된 공장이다.

뜨락또르 부속 품을 만드는 19개의 기대를 단 2명의 로동자가 운영하게 된다. ◇

← (5) 많은 쏩호즈들에서는 비행기로서 비료를 주고 있다.

(6) 쏘련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도 밭에다 이렇게 기계로 물을 뿌리는 것이다. ↓

(7) 아제르 바이잔 가맹 공화국의 20차 당 대회 명칭 꼴호즈에서는 기계로 목화를 따고 있다.

(8) 쏘베트 주권이 수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뜨끼부리 중앙 석탄 선광 공장(오른쪽) — (왼쪽에 있는 것은 혁명전 뜨끼부리 광산이다.

겨울 동안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더욱 잘 하자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의 학교 대에서는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이 겨울철에도 계속 활발히 진행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일부 학교 대 동무들은 겨울 한 철만은 할 일이 없는 듯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잘못 된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쓸모 있게 다지기 위한 실험 실습을 계획하며 선생님들을 도와 더 많은 실험 기구들을 마련하는 일들은 여름이건 겨울이건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또 닭, 오리 털 모으기 폐물 모으기 등도 그렇구요.

우리는 겨울에 오히려 더 재미 있고 활발한 일들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늬바람이 윙윙 불어 대고 눈보라 사나운 겨울 날에도 후군후군한 온실에서 여러 가지 식물의 발아 실험을 진행하며 싱싱 푸르른 곡식이며 채소들을 키우며 가지 각색 꽃들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실험 관찰은 얼마나 즐겁겠어요.

농촌과 산간 마을 학교 대들에서는 동무들이 겨울 한철 가장 즐기는 설상 행군을 조직하고 몸을 튼튼히 단련하며 토끼와 노루 사냥으로 산짐승들의 가죽을 모아 나라에 많은 리익을 주는 한편 산짐승들의 가죽을 판 돈으로는 재미나는 새로운 책들을 사다 겨울 밤에 독서 모임도 가지고요.

또한 농업 협동 조합 아저씨들의 일'손을 도와 가마니 짜기, 탈곡 협조, 수산 사업소 아저씨들의 명태 가공 협조들도 조직하고 또 소년단 대, 분단, 반들에서 스키, 스케트, 썰매 타기, 눈 싸움 등 다양한 겨울 체육을 진행하는 것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우리는 겨울 동안 진행되는 성인 학교 사업을 도와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글을 배워 드리기도 하고 겨울의 긴긴 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가 오늘 우리의 과학이 달성한 성과들을 알려 드리고 미신을 믿는 일이 없도록 꼬마 선전원의 역할도 높이고요.

참 이 얼마나 재미나고 유익한 일이애요. 이 밖에도 겨울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 많을 것입니다.

여러 동무들은 이 겨울을 참으로 다채롭고 재미 있고 유익한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으로 훌륭히 보내도록 합시다.

분단 위원회는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중앙 민청 학생 소년 부부장 최 윤호

지금 공화국 각지 소년단 단체들에서는 새로 선거된 열성자들의 높은 열성에 의하여 대, 분단, 반 사업들이 훌륭하게 진행되여 가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단 위원회들은 소년단원들의 학습을 보다 훌륭히 돕기 위하여 이전보다 더 내용 있고 질서 있게 실험과 실습을 진행하며 조선 인민의 슬기로운 애국 전통을 체계 있게 연구하며 재미 있는 모임들과 벽신문을 발간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단 위원회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게 사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일부 분단 위원회들에서는 위원회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일을 조직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 선거된 분단 위원회 앞에는 분단 사업을 이전보다 한걸음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임무가 맡겨져 있습니다.

이 임무를 옳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단 열성자들이 분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고 소년단원들이 가장 즐기는 일들을 훌륭히 계획하며 조직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단 위원회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것은 우선 분단 열성자들이 그 달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계획서는 분단 위원장이나 몇몇 분단 위원들이 혼자의 머리로 생각하여 세울 것이 아니라 소년단원 동무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분단 위원회는 계획을 세우기 며칠 전에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다음 달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도록 미리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달 동안에 다 해낼 수 없으리만큼 많은 의견들을 소년단원 동무들은 내놓게 될 것입니다. 분단 위원회는 소년단원 동무들과 의논하여 많은 의견들 중에서 학습에 도움이 될 일부터 시작하여 먼저 해야 할 일과 다음에 미룰 수 있는 일들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분단 계획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분단 모임 제목과 그 준비를 어떻게 하며 매개 반에서 분단 모임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옳게 분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애국 선렬들의 빛나는 애국 전통과 눈부시게 발전하는 조국의 오늘과 앞날에 대하여 배우기 위한 모임들과 기타 읽은 책 이야기 모임, 전람관과 공장, 농 목장의 견학, 사회 인사들과의 담화, 체육 경기, 영화 감상 등 여러 가지 재미 있는 일들을 계획하되 그 달에 능히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함경북도 화대 제2 중학교 대 1분단 위원회가 조직한 훌륭한 사업 경험에 대하여 실례를 들어 보기로 합시다. 분단 위원회는 소년단원들의 제의로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조선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연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소년단원들은 일본 경찰들을 반대하여 싸웠다는 전적지인 동굴을 답사하고 그 당시 투쟁에 참가하여 싸운 혁명 투사인 유 승철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담화에서 소년단원들은 우리 나라를 찾기 위하여 혁명가들이 모진 고통과 고난을 무릅쓰고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하여 더욱 잘 알게 되였으며 혁명 투사들의 불타는 조국애와 꺾을 수 없는 강한 의지를 꼭 본 받으리라 마음 다졌습니다. 그리고 3개 그루빠로 나뉘인 이 분단 향토 연구 크루쇼크는 38점의 고려 자기와 토기를 수집하여 력사 연구에 도움을 주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 분단 위원회에서는 《승냥이》《애국의 불'길》 등 그림극을 만들어 부락 인민들에게 보여 드렸는 데 부락 인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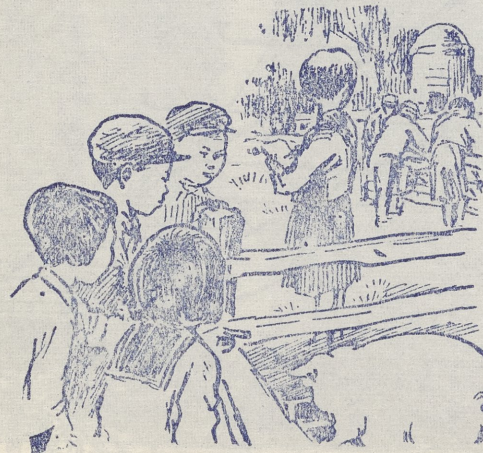
분단 위원회는 소년단원들이 즐겨하는 춤과 노래, 유희들을 많이 배워 주며 독서에 취미를 부치며 우리 나라의 아름답고 유서 깊은 명승, 고적지들을 찾아 려행을 떠나는 재미나는 일들을 조직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분단 위원회는 우리 나라의 산과 들, 학교와 마을, 거리와 도로들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소년단 보호림, 화단을 만들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전체 소년단원들이 모범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1957~58학년도 《교마 5개년 계획》 활동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가져 오도록 계속 꾸준하게 발전시켜 나아가며 이 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분단 위원회는 수시로 반 사업 정형을 토의하며 모범적인 소년단원들과 우수한 반들을 분단 모임에서와 분단 벽신문을 통하여 찬양해 주면서 그들의 열성을 더 높여 주어야 합니다.

분단 열성자들은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계획된 모든 일들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계획서는 빈 종이'장으로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단 열성자들은 분단 사업을 잘 하기 위하여 항상 소년단원들의 요구와 희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전체 분단을 화목스럽고 튼튼히 단결된 집단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아 갑시다.

쏘련은 과학도 세계에서 제일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로씨야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했다.

그 때 세계 자본주의 여러 나라 정치가들과 과학자들은, 락후한 짜리 로씨야의 과학을 물려 받은 쏘련은 도저히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을 따라 잡지 못하리라고 한입 같이 떠들어 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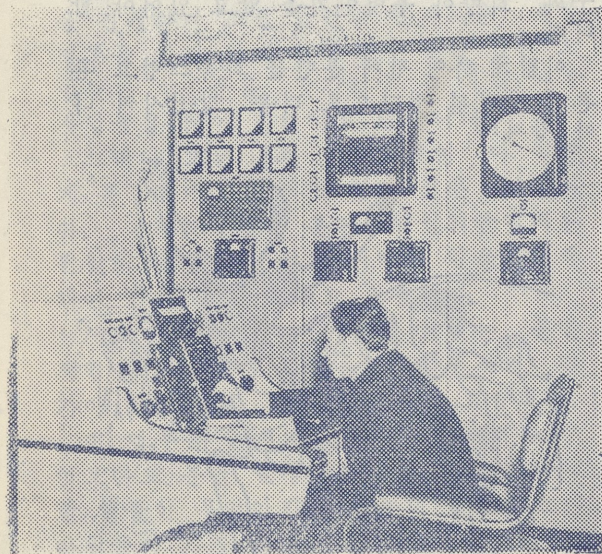
그 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 사실은 어떻게 되였는가? 제국주의자들이 떠버리던 것과는 정반대로 되였다. 과학과 기술을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넓은 길을 열어 준 쏘베트 정권 하에서 쏘련의 과학은 급속하게 발전하여 이미 많은 분야에서 미국을 앞섰을 뿐만 아니라 쏘련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과학의 나라로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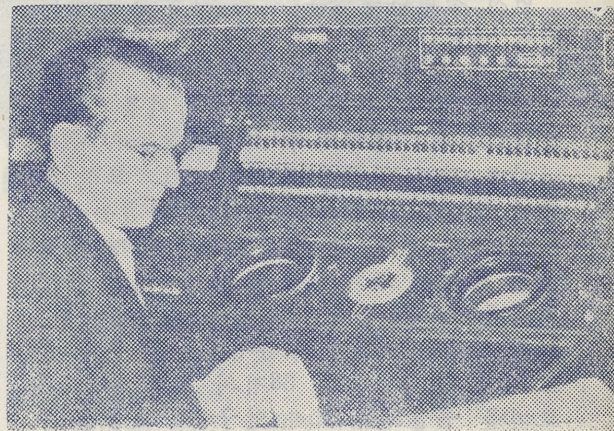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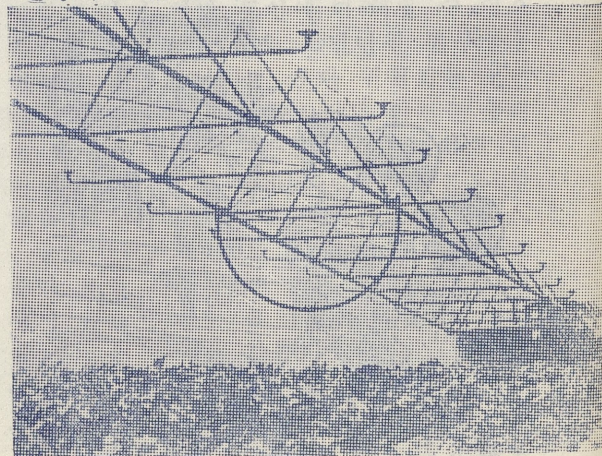
40년 전에 쏘련에 대하여 비웃어 대던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쏘련에서의 대륙간 탄도 로케트와 인공 지구 위성의 발사에 깜짝 놀래여 당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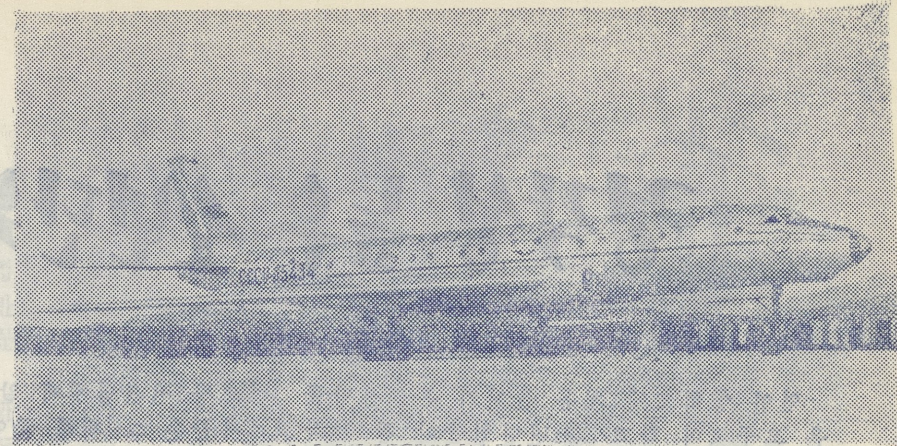
× ×

쏘련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벌써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력으로 전기를 일쿠는 발전소를 건설하여 공업에 전기를 보내고 있다.

지금 200만 내지 250만 키로왓트의 전기를 내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들이 계속 건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쏘련에서 원자력은 인민들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꾸리는 공업 농업 의학 등에 널리 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발전한 과학의 힘으로 쏘련에서는 공장들이 자동화되여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모든 일을 기계들이 해주고 있다.

1초 동안에 수 천개의 복잡한 계산을 해 내는 전자 계산기.

200만 키로왓트의 전기를 일쿨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내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농업을 기계화함에 있어서도 쏘련을 세계에서 제1 위를 차지하게 하였다. 파종과 제초 수확에 이르기까지 쏘련에서는 모든 작업을 기계로 진행하고 있다.

이 기계는 발을 걸어 가면서 비 아닌 비(물)를 100m의 넓이로 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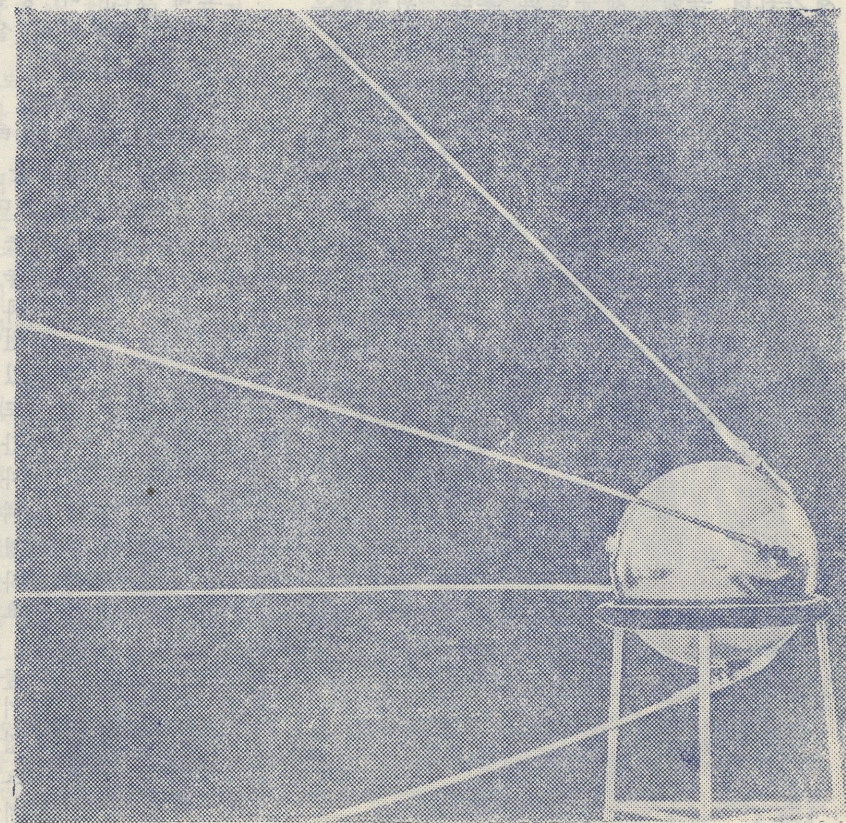
쏘련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로케트 려객 비행기 《뚜 104》호가 날아 다니고 있다. 이 비행기는 100명의 려객을 싣고 려객 기차보다 20배나 빠른 속도로 장거리 무착륙 비행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한 쏘련의 로켓트 려객 비행기《뚜 104》호의 웅장한 모습

쏘련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못한 대륙간 탄도 로케트를 만들어 냈다.

이 것은 아무리 먼 세계 어느 곳이나 할것 없이 쏘아 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이런 로케트로 인공 지구 위성이 발사된다

쏘련의 과학은 사람의 힘으로 새로운《달》을 만들어 벌써 두번이나 하늘에 띄웠다. 이 인공지구 위성의 성공은 앞으로 15~20년후에 가서는 오래'동안 사람들의 꿈으로 되여 온 달 세계에로의 려행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쏘련의 과학은 인민들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바지하고 있다.

받침'대 우에 놓여 있는 쏘련의 인공 지구 위성

경각성 높은 소년단원들

◇최 옥 선◇

연안 중학교에 처음 들어가 본 사람들은 모두《이 학교 소년단원들이 참 경각성이 높은데…》하고 감탄한다. 그 것은 이 학교 대 3분단 동무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잘 알 수 있다.

지난 가을 어느 날 3분단 열성자들이 학교 수직을 담당한 날이였다.

어둠이 깃든 늦은 저녁에 견장 없는 인민 군대 옷을 입은 젊은 사람이 학교 현관을 들어 왔다. 분단 위원장인 성삼이와 분단 벽보 주필인 세균이는 현관으로 나가 학교에 찾아 오는 사유를 물었다. 제대 군인으로서 새로 이 학교에 오시게 된 선생님이라고 하였으나 그런 증명서를 안 가지고 계셨다. 열성자들은 수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곰곰히 생각하던 끝에 세균이와 분단 위원장은 교장 선생님에게 알리러 가고 다른 열성자들은 그 제대 군인을 지키고 있었다.

이슥하여 교장 선생님이 나오셨다.

《아! 류 동춘 선생님이였구먼요! 학생들이 아직 낯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하하하!》교장 선생님은 한참 웃고 나시더니《이 분은 앞으로 너희들을 가르칠 선생님이시다. 래일 아침 조회 때 소개하겠다.》하고 말씀하시면서 동춘 선생님을 교장실로 안내하였다.

이 때 동춘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어느 분단 학생들인지 참 경각성이 높은데요》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 학교 대 동무들이 이렇게 경각성이 높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오래'동안 리 승만 통치 하에서 공부도 못 하고 굶주리며 살던 그들은 공화국 품에 안기면서 일생 맛보지 못하던 행복 속에서 살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옛날과 같은 쓰라린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암해 분자 간첩놈들을 누구보다 미워한다.

이 동무들이 사는 마을은 군사 분계선이 눈 앞에 가로 놓여 있고 주변을 둘러 싸고 있는 앞 바다에는 원쑤들이 둥이를 틀고 있는 강화도, 교동도, 말도 등 많은 섬들이 있어 간첩 놈들은 이 지방을 자주 넘나들려고 한다. 때문에 대에서는 항상 경각성을 높일 데 대한 사업들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조직하였다.

3분단에서는 선생님이 들려 주시는 시사 이야기 모임 외에도 소년단 잡지와 소년 신문에 나오는 간첩 잡은 이야기와 그림 이야기들을 분단 동무들에게 빠짐없이 읽어 주었고 벽보에는《축구화》《기적 소리》를 비롯한 반 간첩 소설들을 읽은 감상문, 반 간첩 영화를 본 감상문 등을 자주 실리였다.

도에서 순회하는 반 간첩 투쟁 전람회에도 분단에서는 단체로 견학을 조직하고 감상회도 가지였다.

한편 그들은 견학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마을 어른들에게 선전하는 사업도 훌륭히 조직하였다. 꼬마 선전원의 활동은 반을 통해 진행하였다.

특히 2반인 지 명화 동무네 반에서는 간첩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 어른들에게 들려 주면서 마을에 나타나는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살펴야 한다고 선전했다.

어머니들의 일을 도우며 어머니들이 반 간첩 전람회를 관람하도록 하였다. 전람회에 갔다 오신 어머니들은《참낯선 사람은 함부로 재우지 말아야겠다. 세상에 그 보다 더 나쁜 놈들이 어디 있겠니》하고 간첩놈들을 저주하였다.

3분단에서 진행한 이 모든 사업들은 전체 분단 동무들의 경각성을 더욱 높이게 하였다.

결과 분단 벽보 주필인 심 세균 동무는 제대 군인으로 가장한 간첩을 체포하여 분단의 영예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지난 여름 방학이였다. 연안 농업 전문 학교 마당에서 뽈을 차고 있던 세균이는《순찰대가 어디 있는가 지금 짓고 있는 농업 전문 학교 건설장에 경비가 있는가》하고 수상하게 물어 보고 가는 제대 군인을 발견했다.

순간 세균이는 방학이 시작되던 날 집에서 쉬는 기간에도 항상 원쑤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던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세균이는 옷을 주어 입고 뽈도 다 집어 버리고 질음'길을 달음질쳐 십자 거리에 있는 순찰대 아저씨에게 달려 갔다. 수상한 놈보다 먼저 순찰대 아저씨를 만날 수 있은 세균이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순찰대원 아저씨와 같이 그 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놈은 순찰대 아저씨와 마주치자 선뜻이 증명서를 내 보이면서 세균이가 쓸데 없이 자기를 의심 받게 했다는 듯 눈을 흘겼다.

세균이는《정말 인민 군대라면 나를 기특하게 생각하겠는데……》하고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밤 늦도록 그 놈을 조사하는 것을 지켜 서 보다 순찰대 아저씨들이 늦었는데 어서 돌아 가 보라고 해서야 집으로 돌아 왔다.

그 후 얼마 안 지나 8월 13일에 황해남도 내무부에서는 경각성 높은 세균 동무에 의해서 간첩이 체포되였다는 편지를 학교에 보내여 왔다. 대에서는 모임을 열고 세균 동무의 간첩 잡던 경험을 전체 학교 소년단원들에게 들려 주었다.

한 놈의 원쑤도 발 붙일 곳이 없도록 하는 것, 이 것은 지난 날의 자기네들 처럼 고생하는 남조선 소년들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원쑤들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더욱 경각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4일 군내무서 아저씨를 모시고 이야기 모임을 가지였다.

이 3분단 모임에는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과 분단 지도원 선생님들, 대 열성자들과 각 분단 위원장들도 참가하였다.

군 내무서에서 나오신 최 봉남, 김 봉세 아저씨는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려는 간첩 암해 분자들의 죄악상과 간첩놈들이 기여드는 방법 그들의 활동 그리고 가장하는 형식들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하시였다.

특히 연안에서 오래도록 간첩 활동을 해 오다가 적발 된 심 세구라는 놈의 간첩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셨다. 심 세구는 여러 지방에 자기 졸도들을 두고 련락하면서 폭동 계획을 세웠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는 간부들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협동 조합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농민들이 공화국 정부의 시책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조합을 파괴하려고 하였다.

놈들은 미군이 원자탄을 쓴다고 선전하면서 거짓 약까지 만들어 팔아 먹었다. 밀가루와 금계랍을 섞어 빚은 것을 가지고 이 것을 먹으면 원자탄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인민들의 돈을 긁어서 자기 배를 불리였다.

이 이야기를 듣던 동무들은 간첩놈들의 교활한 행동을 더 깊이 깨닫고 이를 갈았다.

이처럼 이 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원쑤들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고 있다.

황남 연안 중 학교 대에서

◇ 박 정 렬 ◇

무엇에 놀란듯 소스라치며 잠에서 깨여난 변 선녀 동무는 막 밖으로 뛰쳐나와 토끼 우리 있는 데로 갔습니다.

토끼 우리 안에 하얀 토끼 한 쌍이 있는것을 보고야 선녀 동무는 마음이 놓인다는듯이 《휴—》하고 숨을 길게 뽑았습니다. 토끼는 가까이 다가선 선녀 동무에게 먹이를 달라고 빨간 눈 알을 굴리며 입을 호물거렸습니다.

선녀 동무는 광주리 속에서 아카시야 잎을 한 줌 갔다 주고 나서 토끼 사온 날을 꼽아 보았습니다. 겨우 스무 날 밖에 안 되였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사올 때보다 퍽 큰 것 같았습니다.

선녀 동무는 혼자서 히죽이 웃으며 아침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동쪽 하늘을 멍하니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넌 새벽부터 나와서 뭘하고 섰니?》 터밭에 나가 고추를 따 오던 언니가 이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 갔습니다.

《언니! 내 말 좀 들어 봐요》하고 선녀 동무는 깡충깡충 뛰여서 언니를 뒤따라 들어 갔습니다.

《글쎄 언니! 나는 이런 꿈을 꾸고 막 놀라 깼어》.

선녀 동무가 변소에 갔다가 재차 새벽 잠이 들었을 때입니다. 선녀 동무가 토끼 우리를 말끔이 청소하고 있는데 키가 장'대만큼 크고 승냥이 같이 생긴 놈이 두리벙두리벙하며 뜰 안으로 들어 오질 않겠어요. 그 놈은 토끼를 보자 선녀 동무를 총탁으로 밀치고는 토끼를 빼앗아 갔습니다.

선녀 동무는 무서움도 모르고 그 놈을 뒤쫓아가《미국 승냥이놈아》하고 고함을 치다 잠에서 깨였다는 것입니다.

언니는 호호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어제 밤에 네가 소년 신문에서 경상북도 금릉 중학교 학생이 미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읽어 주더니만 그런 꿈을 꾸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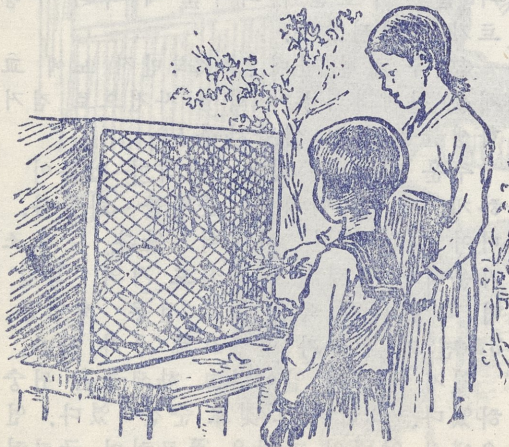
남반부 소년들에게 원호금을 보내기 위해 기른다는《원호》토끼를 얼마나 귀중히 여겼으면 꿈까지 꾸었으랴 언니는 어린 동생의 갸륵한 마음에 다시금 감탄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넌 겨울에도 토끼를 기를테냐?…추운데 말이야》.

《그럼 기르잖구요. 그까지 일쯤이야 뭐… 남조선에서 사는 불쌍한 애들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서라도 도와 주고 싶어요》. 선녀 동무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참 용하다. 선녀야… 나도 짬짬이 토끼를 돌봐 줄테니 한 마리 더 사다 넣자》. 언니의 이 말에 선녀 동무는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지난 8월초에 있은 분단 모임에서 소년단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이 남조선 인민들과 어린이들을 막 죽이며 굶주려 허덕이게 하고 있는데 대하여 말하면서 불행한 남반부 어린이들을 도울 것을 의논했습니다.

이 날 선녀 동무도 거리에서 깡통을 차고 헤매는 남반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있는 힘을 다하여 원호금을 보낼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 후 그는 집 울타리에다 심고 열심히 가꾼 15포기의 해바라기에서 5kg의 수확을 낸 것과 도토리를 주어서 수매시킨 돈으로 토끼 한 쌍을 사 놓았습니다.

토끼를 기르면서부터 선녀 동무는 아주 부지런해졌습니다. 공부하고 난 짬짬이면 토끼풀도 뜯고 날마다 일기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서는 이런 것도 읽을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개임

학교에서 돌아 오자 곧 나는 겨울 동안 토끼 먹이를 위해 아카시야 잎을 뜯기도 하고 밭으로 돌아 다니며 짤라 버린 무 잎도 주었다. 나는 이 것들을 잘말리우기 위해 벼'짚으로 엮었다.

나는 늘 어떻게 하면 토끼들이 빨리 크게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미군놈은 10월 3일에도 남조선 학생 한 명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 돈이 없어 천대를 받으며 학교에서 쫓겨 나며 거리로 마음 놓고 다닐 수 조차 없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나는 토끼를 정성껏 길러 여러 마리가 되면 토끼 가죽과 원호금을 그들에게 꼭 보내 주겠다》.

변 선녀 동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은 이 학교 대의 많은 동무들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이 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짬짬이 폐물을 모으며 도토리를 주어 저금 하여 원호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 위원회 계획에 의하여 그림극도 하며 벽보《미제 침략군은 물러가라》는 특집호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분단 리 용환 동무가 지난 날 경기도 김돈군 양통면에서 살면서 헐벗고 굶주리던 쓰라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그 때 양촌 국민학교에 함께 다녔다는 덕희 동무에게 보내는 편지도 실려 있었습니다.

자강도 희천군 희천
인민 학교 대에서

광주 학생 운동을 회상하면서

신의주 교원 대학 력사학 강좌 리 춘 만

벌써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일이다.

나는 그 때 신의주 고등 보통 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1929년 11월 3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반일 혁명적 학생 운동이 10월 혁명의 영향을 받은 광주의 애국적인 학생들에 의하여 시작되였다.

이 반일 투쟁은 료원의 불'길 처럼 삽시간에 전 조선 방방곡곡의 도시와 마을의 학교를 휩쓸면서 남으로 북으로 퍼져 갔다.

광주에서 사건이 일어난 며칠 후 이 소식은 북쪽 멀리 신의주에까지 알려지게 되였다.

그렇지 않아도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식민지 노예 교육 정책에 대하여 항상 치솟는 격분과 증오심을 막아 낼 길 없던 그런 때라 이 소식은 우리 모든 학생들의 마음을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들끓게 하였다.

누구나 모두가 《일제를 쳐부시자!》 《광주 학생들 처럼 싸우자》고 웨쳤다.

흥분과 격동과 반일 감정은 비등하여 갔다. 불만 지르면 폭발될 그런 기세가 누구의 눈에도 확실히 보여졌다. 선진적인 학생들이 점차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이 때 신의주 고등 보통 학교는 바로 그 해 봄에 있은 학생 독서회 사건으로 하여 놈들의 혹심한 탄압을 받아 오던 때였다. 그 때 우리들은 비밀히 10월 혁명에 대하여와 혁명 사상을 배우기에 힘썼었다.

일제의 탄압을 받았으나 뿌려진 반일 혁명의 씨는 다시 자라났으며 뼈'속에 사무친 반일 감정은 꺼질 수 없었다.

선진적인 학생들은 경찰과 학교 측의 경계와 감시의 눈을 피하면서 비밀리에 자주 모임을 가졌다.

당시 5학년 김 갑을 비롯한 8명이 중심이 되여 투쟁 위원회가 조직되였다.

그러나 적들도 가만 보고만 있지 않았다. 더욱이 이 시기에 서울로부터 보내여 왔던 비밀 격문 (삐라)이 압수되여 감시의 눈초리는 더욱 심하여갔다. 매일과 같이 일본 교원들이 책상과 기숙사 안을 뒤져갔다.

이 해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겨울 방학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투쟁은 다만 연기되였을 뿐 투쟁 준비는 이 기간도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였다.

겨울 방학 기간에 서울로부터 공작 임무를 맡은 학생이 내려 왔다. 드디여 구체적인 토론 끝에 새학기에 학생들이 강당에 모이는 기회를 리용하여 격문을 읽고 시위를 조직하자는 것으로 결정되였다.

시학식을 앞둔 전날 밤 회합에서는 책임 분공들이 되였고 붉은 바탕 천에 다음과 같은 구호들이 씌여진 세 폭의 푸랑카트가 마련되였다.

《민족 차별 반대!》《식민지 노예 교육제를 철폐하라!》《학생 사건으로 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석방하라!》

추운 겨울 긴 밤을 밝히며 먼동이 훤하게 터 올 때까지 준비를 하였다. 드디여 1월 6일 아침이 왔다. 초조한 가운데서 진행된 시학식도 거의 끝날 무렵 학생 대렬 속을 뚫고 선동 책임을 진 3학년 계 동무가 연단으로 올라 갔다.

일시 혼란이 일어나고 학생들은 뒤숭숭하였다. 그러나 그 것도 순간이였다. 연단 우에서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며 규탄하는 계 동무의 웨침만이 들려 왔고 조국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심장의 고동소리만이 들려 오는듯 강당 안은 기침 소리 하나 없다.

《…놈들은 우리 민족을 업신 여기며 모욕하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유구한 문화를 말살하려 합니다. 광주의 학생들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일어납시다…》.

다음 말들은 더 나의 귀에 들려 오지 않았다. 뒤에서 련이여 독립 만세 소리가 강당 안을 뒤흔들었다.

시위에로 나가자! 어느 동무가 웨친다. 팔과 팔이 모르는 사이에 끼여졌다.

그러자 대렬이 강당 문으로 향하여 나갔을 때 강당 문은 벌써 잠겨져 있었다. 겁에 질린 일본 교원들과 친일 조선인 교원들이 문을 잠근 것이다.

이 날은 이렇게 그만 실패로 돌아 갔다. 몇명의 학생이 출학되였다.

그러나 이런 악착한 탄압과 공갈도 결코 청년들의 반일의 불'길을 끌 수는 물론 없었다. 대렬은 다시 정돈되여 갔고 지도부는 다시 보충되여 갔다.

며칠 후 1월 24일 점심 시간에 학생들이 모이는 기회를 리용하여 다시 제 2차의 시위가 일어났다. 300여 명의 학생들은 어깨를 서로 겯고 교문을 나서 의주 통로를 향하여 억센 파도 처럼 터져 나갔다.

만세! 소리와 혁명가가 목메여 울려졌다. 선배들의 투쟁 정신을 이은 동무들의 얼굴과 가슴 마다에는 오직 일제에 대한 증오로 불탔다.

시민들은 우리 대렬을 동정의 마음으로 고무하여 주었다.

선두가 의주 통로에까지 다달았을 때에 경찰대와 소방대가 미친듯이 달려 들었다. 추격과 체포가 시작되였다.

그 날 들려 온 바에 의한다 하여도 수십명이 체포 구금되였다 한다.

우리 나라의 남쪽 광주에서 터진 반일 투쟁의 진동은 이 곳 신의주에서도 이렇게 진동되였고 터졌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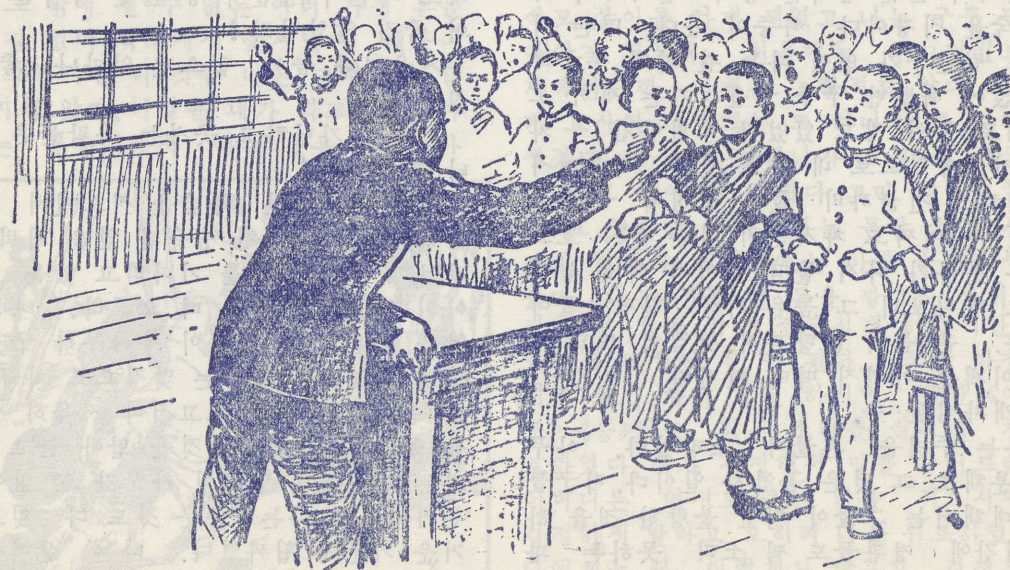
그 후에도 투쟁은 탄압을 박차고 계속되여 갔다. 그럴 때마다 희생은 컸다. 그러나 투쟁은 멈춤 없이 벌려졌다.

당시 3학년생은 입학초에 100명이였던 것이 졸업시에는 불과 27명 밖에 남지 못하였다. 이 사실은 이 곳 학생들의 반일 투쟁이 얼마나 줄기차게 전개되였는가를 뵈여 주는 실례로 된다.

나는 11월의 광주 학생 운동을 중심한 이 때의 흥분과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나도 비록 나이는 16세였지만 이 것을 계기로 하여 선진 학생들의 적극적인 투쟁 대렬 내에 힘차게 들어가 싸웠던 것이다.

소설

이것을 잊지 말자

◇박 응 호◇

아침부터 푸실푸실 진눈까비가 내리더니 오후에 잡아 들면서부터는 쌀쌀한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날씨는 옷싹 치워진다. 겨울이 닥쳐 온 것이다.

나는 이날만은 일찌감치 구두 닦기통을 걸어 메고 집으로 돌아 오고 있었다. 부르르 몸이 떨린다. 추워서 자꾸만 와들와들 떨리는 데다 점심까지 굶고 있는 터이므로 허기증이 나서 눈 앞이 아찔아찔해 진다. 누더기 여름 샤쯔 한 장을 입고 있는 데다 지난 여름 고물 상점에서 사서 신은 미군 군화는 해질 대로 해져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빼금빼금 입을 벌려 차거운 진눈까비 물을 삼키는 통에 발가락이 시려 죽을 지경이다. 짜증이 난다. 더는 이대로 걸을수가 없어 나는 길'가에 쭈구리고 앉아 헤벌린 구두 끝을 가는 새끼 오락지로 동여 매고 있었다. 별안간 차가 전 속력으로 내 바로 옆을 지나면서 철썩하고 진눈까비 물을 전신에 뒤집어 씌웠다. 어찌도 차거운지 나는 《흑》 흐느꼈다. 부아가 나서 홀떡 일어서 어떤 놈인가고 바라보니 그 놈은 미군 헌병놈들이였다. 온 몸에 물탕까지 뒤집어 쓰고 나니 이제는 이까지 떡떡 떨린다.

《개자식들…》.

나는 주먹을 흔들며 소리쳤다. 아무리 분해도 그 것은 공연한 일이다. 미군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불량한 짓을 하든지간에 경관들도 찍 소리 못하는 판인데…

나는 떨리는 몸을 가까스로 가누며 걸음을 재촉했다. 몸이 팟팟이 얼어드는 것만 같다. 게다가 배에서는 연성 꼬르륵 소리가 난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냥 걸었다. 바람이 더욱 매섭게 불어든다. 나는 더욱 몸을 움추리다말고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엥이 겨울은 뭣 땜에 생겼담…》.

정말이지 나처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일거라고 느꼈다. 밥은 고사하고 겨울이 오면 땔 나무는 어디서 구하며 옷은 또 어데서 생기나. 겨울은 참으로 무서운 악마다. 지난 겨울만 해도 차손이 영돌이 등 많은 아이들이 얼어 죽지 않았던가!

겨울이란 놈이 없으면 얼마나 좋으랴 싶었다.

그러면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가느다란 한숨을 지으면서 우리 집 쪽으로 뻗어 간 송유관 옆을 처벅처벅 걸었다. 문득 나를 기다리고 있을 영진이의 얼굴이 아련히 떠 오른다. 나는 무엇을 잊은 것을 찾듯이 부랴부랴 구두 통 뚜껑을 열었다. 나는 몇겹으로 차곡차곡 싼 종이 꾸레미를 보고서야 저윽히 마음을 놓았다. 순간 이 것을 받아 들고 좋아하는 영진이의 얼굴이 자꾸만 눈 앞에 얼른거린다. 나는 추운 것도 다 잊고 즐거운 기분에 휩싸였다. 나는 살며시 구두 통 뚜껑을 닫았다. 그 종이 속에는 도롭프스 다섯 알이 있다. 다른 아이들이 이 것을 보면 《그게 무슨 중한거야!》하고 빈정댈지 모른다. 웃으라면 웃어보라지. 그러나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는 나만이 알고 있는 슬프고 분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그건 모두 우리가 가난하고 천대 받고 사는데서 생긴 일이다.

나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김 주사네 소작살이를 살다 홀치긴가 뭔가 하는데 걸려 《국군》으로 끌려 갔었다. 집에는 어머니와 나와 동생인 일곱살 나는 영진이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우리가 시골을 버리고 여기 인천 거리 끝 오막집으로 옮겨 온 것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친척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다. 참으로 더는 시골서 살 수가 없어서 흘러 흘러 여기까지 왔던 것이다. 우리 집은 호남 지방에 있었는데 금년 여름에 그 몸서리나는 홍수로 집과 땅을 잃고 하늘에 뜬 구름처럼 흘러 다녔다. 물론 내가 학교에 다닐 수 없음은 뻔한 일이다. 벌써 내가 국민 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그만 둔 것은 시골에 있을 적부터이다. 아니 내가 학교를 그만 두었다는 것 보다는 쫓겨 났다고 말해야 옳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 하면 아버지가 《국군》에 끌려 간 이후로는 그 많은 수업료며 그 밖에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돈을 바칠 길 없어 학교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것을 나는 그렇게는 슬퍼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학교를 못 다닌다는 분통이에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정말이지 나는 학교를 못 다니면 못 다녔지 밉살스러운 담임 선생과 돈 많은 집 아이들한테서 받는 천대와 멸시를 참을 수가 없었다.

선생들은 우리네 처럼 돈 없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양복개나 입고 번쩍 구두나 신고 다니는 부자 집 아이들 하고는 같은 책상에도 앉히지 않았으니까! 때문에 우리네 아이들은 교실에만 들어 가면 기를 펴지 못했다. 이 것은 부자 집 아이놈들이 무서워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것은 선생이 언제나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항상 부자'집 아이들을 부추겨 주는 데서였다. 더욱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배워 주는 것은 모두 전쟁 이야기이며 미국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모셔야 한다는 것만을 가르쳐 주었다. 글쎄 전쟁이 뭐가 좋아서 《북진북진》하는지 나는 도모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교장은 만날 떠버렸지만 미국놈들이 하는 짓은 보지도 않는 모양이다. 사람 죽이기는 개미 새끼 밟아 죽이듯 하는데… 그런 놈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있었다가는 큰 일 나겠다. 학교 다니던 이야기는 더 해야 뱉만 나서 더 할 생각도 없다.

시골서 떠난 우리는 인천에 와서 자리를 잡았다. 어머니는 미국 무역 상사의 전문지 뭔진가 하는 채 만규란 부자 집 식모 살이를 하게 되였고 나는 구두 닦는 아이가 되였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으나 계속하니까 이제는 그렇지도 않다. 그런데 요사이 나에게는 또 하나의 큰 걱정이 생겼다. 그 것은 어머니가 고된 채 만규네 집 식모 살이를 지내다 그만 앓아 눕게 된 그 것이다. 처음에는 몸살 처럼 시령시령 앓다가 요지음에는 아주 몸져 누우셨다. 나는 사흘 번 돈을 깡그리 써서 감기약 몇 첩을 사다 잡수시게 하였지만 웬일인지 깨성이 잘 안 된다. 오늘 아침만 해도 숨이 차서 헐헐 하시며 간간 《아이쿠》《응》하는 앓는 소리를 실내기 처럼 토하였다. 내가 걱정해서 밈을 쑤어드리면 어머니는 억지로 웃는 낯을 지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였다. 나에게는 웬 이렇게도 슬프고 걱정되는

일만 생겨날가!

어제 생긴 일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저녁 때 일이다.

채 만규네 아들인 문길이놈은 매일 처럼 밉골사납게도 쵸크레드며 사탕알을 두 손에 잔뜩 들고 우리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로 나타나서는 내 먹는 것 보란듯이 으득으득 깨물어 먹군 했다. 글쎄 쳐먹겠으면 집에서 쳐먹을 것이지 하필 일년 가야 군'입질한번 해보지 못하는 우리게 와서 그런 거드름을 피울게 뭐람! 그 때마다 어쩌도 밉살머리스럽던지 막 밸이 꼴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 날은 자기네 집에 무역 상사 미국 주인이 왔다나, 그래 유별나게 거드름을 피우며 미국 주인이 준 것이라고 코가 높아져서 알락달락한 그림이 박힌 미국제 도롭프스 통을 가슴에 안고 다니면서 짤랑짤랑 통을 흔들어 대며 돌아 다녔다. 철 없는 것들이란 할 수 없다. 우리 영진이랑 그 밖의 몇몇 꼬마들은 사탕이 먹고 싶어 문길이놈의 주위에 삥 둘러 서서 입에 손가락들을 물고 있었다. 이를 본 문길이놈은 무슨 좋은 꾀나 생각해 낸 것 처럼

《사탕 먹고 싶으면 주어 먹어!》하며 사탕 한 알을 휭 하니 공중으로 던졌다. 그러자 꼬마들은 일시에 오그라 들며 서로 사탕알을 줏겠다고 야단쳤다. 글쎄 아무리 못 먹고 못 살기로니 이런 놈의 사탕알을 주어 먹는다니 될 말인가! 문길이놈은 우리네 아이들을 개만도 여기지 않는 놈이 분명하다. 이 놈은 미국 주인이 항상 안고 다니는 삽살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저의 애비가 또 그대로 하는 것을 다시 본 받아 하는 것에 틀림 없다. 문길이놈에게는 사나운 삽살개가 있었으니까!

문길이놈은 아이들이 사탕알 줏기에 눈이 뻘개 야단치는 것이 무척 재미 있었던지 다시 사탕알을 뿌렸다. 이 때 마침 집으로 돌아 오던 내가 이 것을 보았다. 나는 확 눈에서 불이 일었다. 나는 메고 있던 구두 통을 내동댕이치며 문길이놈에게 달려 들었다. 나는 당장 문길이 놈의 멱살을 움켜 쥐고《철썩!》죽어라고 그 놈의 귀쌈을 갈겼다. 본래 겁 많고 엉석둥이인 문길이놈은《으악!》하고 비명을 찌르며 히뜩 나자빠졌다. 그 바람에 도롭프스통이 땅바닥에 젱겅하니 떨어지면서 와르르 사탕알들이 쏟아졌다. 그 놈은 방금 숨이 넘어가는 시늉을 하면서(앙앙)목놓아 울기 시작했다.

《이 자식아! 너 다시 이런 짓만 해 봐, 그냥은 안 둘테다!》.

하며 나는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러자 겁쟁이 문길이놈은《엄마》하고 비명을 지르며 벌렁벌렁 기여 달아난다. 저따위가 다 글쎄 거드럭거리니 분통이가 터진다.

나는 아이들을 쏘아 보았다. 그 바람에 아이들은 계면적은 생각이 들었던지 서로 얼굴들만 마주 보고 있었다.

문뜩 영진이 손에 쥐여진 빨간 도롭프스알이 눈에 띄웠다. 그 것을 보니 분해서 견디여 낼 수가 없었다. 나는 와락 증이 나서 영진이에게로 달려가 사탕알을 쥔 영진이의 한 쪽 손을 탁 쌔려 갈겼다. 나는 땅 바닥에 떨어진 사탕알을 발로 부벼 버리며

《이 못난 거…》.

하고는 영진이의 엉뎅이를 철썩 한대 때렸다. 영진이는 서글피 엉엉 울기 시작하였다. 그를 보자 나도 코'등이 시큰둥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우리 영진이를 업고 구두 통을 한손에 드리우고 집으로 왔다. 집에 오면서 나도 울었다. 왜 그런지 자꾸만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영진이를 업고 돌아 오면서《우지말어! 래일 당장 더 맛 있는 사탕을 사다 주마》하고 말하였다. 나는 며칠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더 고급 사탕을 영진이에게 사다 주리라 마음 먹었다. 그래서 산 것이 바로 이 다섯 알의 사탕이였다.

집이 가까와짐에 따라 나는 반달음으로 뛰기 시작하였다. 방금 영진이가 내 목에 매달리며 좋아 날뛰는 것만 같았다. 나는 기울어져가는 집 문을 열기가 바쁘게

《영진아! 사탕 받아!》.

하고 종이 뭉치부터 내 밀었다. 그런데 웬 일일가? 영진이의 대답대신 울음소리가 들려 오지 않는가. 순간 나는 온몸이 매시시해지며 타악 맥이 풀리는 것을 느꼈나.

나는 방안으로 뛰여 들어 갔다. 머리를 헝크린채 어머니가 일어나 앉아 영진이를 품에 안고 정신 나간 사람 마냥 허공만 무섭게 노려 보고 있지 않는가? 나는 방에 들어 가서야 이웃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 앉아서 분노에 찬 얼굴들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는 영진이를 끌어 안았다.

《아 꾀가!》

나는 몸을 소스라치며 소리쳤다.

《영진아! 사탕을 사 왔어 사탕을!》

나는 반 울음으로 이렇게 소리치며 대답 없는 영진이를 흔들었다. 그러자 어머니의 움푹 꺼진 흡뜬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 방울이 재'하여진 영진이의 얼굴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죽었구나!》이렇게 감촉한 나는 눈앞이 아찔해지며 가슴이 콱 결려 울래야 울 수가 없었다.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데다 뜻하지 않은 큰 슬픔에 부더치자 정신이 아찔해지여 방 안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나는 어머니의 한 쪽 팔에 안겨 있었다. 정신을 차린 나는 이것이 꿈이 되여주렴 하고 원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른 한 팔에 고이 잠든 영진이를 보자 나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 쳤다.

《누가 죽였어요?》.

《미국놈이!》.

어머니가 똑똑히 말하였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도 오히려 원한과 분노가 절절 끓어 번지고 있음을 나는 느꼈다.

옆집에 사는 철도 기관구 로동자인 태식 형님이 주먹을 부르르 떨며 이런 것을 알려 주었다.

영진이는 하루 종일 나를 기다렸다. 그는 동리 아이들에게 내가 어제 약속한 말을 그 대로 옮겨가며 자랑을 하며 다녔었다. 저녁이 되자 영진이는 나를 더 빨리 보려고 송유관 우에 올라가 발돋음해 가며 길'가를 살폈다. 그러나 형의 그림자는 좀체로 나타나지 않는다. 영진이는 더욱 안절부절하며 송유관 우에서 서성거렸다. 내가 집에 들어 서기 바로 삼십분 전 일이였다.

《땅!》.

어디선가 요란한 총성이 울렸다. 순간 송유관 우에 발돋음 하며 서 있던 영진이가 곤두박질을 하며 쓰러졌다. 난데 없는 총소리에 근처 어른들이 뛰쳐 나왔다. 이 때에 나무 그루 뒤에서는 콩나물대 처럼 밋밋한 미군놈이 어정어정 걸어 나왔다.

《저 놈이다!》.

땅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여 쓰러진 영진이를 품에 안은 태식 형님이 미군놈을 가리키며 소리 친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어라알아 들을 수 없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 쳤다. 구레나룻이 시'누렇고 눈이 우멍한 미군놈의 상판은 징글맞아서 잠시도 바로 볼 수가 없었다. 흡사 악귀와도 같았다. 그 놈은 아직 총구멍에서 연기가 가시지 않은 엠·원 보총을 한 손에 드리우고 멀찌감치에서 사람들을 향해 혀까부러진 소리로 말한다.

《그 아이 도적놈입니다. 우리 휘발유 훔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저 놈 죽여라!》소리치며 달려 들었다. 이에 질겁한 미군놈은 총을 휘두르며 위협을 하며 어물어물 꼬리를 사리며 주둔하고 있는 초소로 뺑소니를 쳤다. 이리하여 나의 동생 영진이는 억울하게도 죽었다. 태식 형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방구석에 놓인 도끼를 집어 들고 정신 없이 뛰여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태식 형님이 나를 끌어 안는 통에 나는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다.

이 때였다. 오랜 병으로 피골이 상련한 어머니가 영진이를 안고 벌떡 일어선다.

《내 아들을 살려 놔라! 미국놈들아!》하고 어머니는 앓는 사람 같지도 않은 큰 목소리로 소리치더니 성큼성큼 밖으로 걸어 나간다. 태식 형님은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다. 그는 근처 사람들에게 소리 높이 웨쳤다.

《뒤를 따릅시다. 영진이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맙시다. 미군놈들을 우리 조선에서 물러 가게 해야 합니다. 미군놈들이 우리 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이런 불행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네들 이 것을 잊지 마시요!》.

태식 형님의 웨침은 사람들의 가슴 마다에 쩡쩡 울려 퍼졌다. 태식 형님이 어머니를 따르자 근처 어른들도 주먹을 부르쥐고 《미국놈들은 물러가라!》고 소리 높이 웨치며 밖으로 흘러 나간다.

미국놈들에 대한 저주와 원한으로 마음이 뒤집힌 어머니는 맨발로 차거운 진눈까비가 질벅이는 길 우를 걸어 가며 낫윽히 웨친다.

《이 놈들 미국놈들!》.

어머니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미군놈들의 초소로 영진이를 안고 걸어간다. 그러자 이 골목 저골목에서 사람들이 뛰쳐 나왔고 길 가던 사람들도 사연을 듣고 분노에 찬 얼굴로 대렬로 들어섰다. 어느듯 사람들은 몇백명이 넘도록 몰려 들었다.

나는 이때에 비로소 내가 겪어 온 모든 슬프고도 분한 일들이 바로 미국놈들 때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

나는 주먹으로 눈물을 벅 훔치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나는 분노에 치를 떠는 사람들을 보고 이 슬프고 가슴 아픈 것이 나 한사람 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영진이의 휘늘어진 손을 굳게 잡아 쥐였다.

그리고 그 손을 높이 들며 소리쳤다.

《미국놈들은 우리 조선에서 물러가라!》

그러자 우리를 따르던 수백명 사람들이 천지가 진동하듯 주먹을 휘두르며 《미국놈들은 물러가라!》고 소리 높이 웨친다.

나는 이 웨침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이 마음들이 그리운 행복한 날이 오게 하는 그 것임을 알았다.

봉화재에서의 두 소년

◇리 종 근◇

1950년 겨울, 원쑤놈들이 함북 어랑에 기여 들었을 때 이 곳에서 원쑤놈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두 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나는 며칠전 그 투쟁의 주인공인 리 명훈 동무를 찾아 갔습니다.

《큰 자랑은 없어요. 다만 그 때는 나어린 소년단원이였으니까 자랑이라면 자랑이 될런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그 때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 *

바로 이맘 때입니다.

원쑤놈들이 이 곳에 기여 들자 인민들은 모두 인민 군대를 도와 나섰는데 우리만은 어린 소년이라고 아무 일도 시켜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린 마음에도 바로 눈앞에 원쑤들을 두고 싸우지 못하는 것이 몹시 안타까왔어요. 그래서 나는 나와 가장 친한 동무인 창수를 찾아 가서 우리도 함께 싸우자고 이야기했더니 그는 나의 손을 덥석 잡으며 기뻐했어요.

싸움은 바로 우리 마을 앞산에서도 버려졌는데 미군놈들은 때때로 우리 마을에 내려와서 별의별 지랄을 다 부렸어요. 어떤 때에는 하나 둘씩 내려 오기도 했는데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 무기라도 있었으면 잡을상도 싶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창수가 고추 가루를 가지고 나를 찾아 왔어요.

—너 그건 뭘 하려고 가져 왔니—하고 물으니

—이건 내 《무기》야 이걸 놈들의 눈에 뿌리고 무기를 빼앗거던—

참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손칼을 선들선들하게 갈아 가지고 《무기》로 삼았지요.

그러나 이따위 《무기》만으로는 원쑤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전투가 끝난 산을 헤매며 놈들의 시체에서라도 무기를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봉화재에 올라 갔다가 미군 한 놈이 무거운 권선기를 메고 전화선을 늘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수의 말대로 우리는 고추 가루를 그 놈의 눈에 뿌리고 칼로 찔러 죽인 다음 그 놈의 카빙총을 빼앗으려고 한참 그 놈의 뒤를 쫓아 다니다 말았어요. 가슴이 떨리고 그 놈이 몹시 사방을 살피는 바람에 달려들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 전화선으로 놈들의 말이 오고 갈테지… 옳지 저걸 끊어 버리자.

그래서 우리는 그 놈이 지나간 다음 전화선을 끊어 버렸지요.

그 후 이 이야기를 인민 군대 형님들께 했더니 그 놈을 잡기보다 전화선을 끊은 것이 더 훌륭한 일이였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창수와 나는 늘 봉화재에 오르군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 봉화재에서 우둥'불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둥'불 모임에 참가하셨던 아래'

마을 할아버지는 임진 조국 전쟁 때 이 곳 인민들이 왜놈과 싸워 이기고 이 곳에 봉화를 올리여 승리를 축하한 곳이라고 하면서 그 때로부터 이 곳을 봉화재라고 부르게 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봉화재에 오르기를 몹시 즐겨했습니다.

모진 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였습니다. 창수와 나는 이 날도 봉화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몹시 날씨가 추워서 우리는 곧 산을 내려 왔습니다. 산밑에는 빈 집 한 채가 있었는 데 우리는 이 집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문을 걷어차며 네 놈의 미군과 통역 한 놈이 뛰여 들지 않겠어요.

놈들은 모닥불을 보자 《오케! 오케!》 하며 우리를 막 밀쳐내고 모닥불 두리에 빙 둘러 앉아 한참 몸을 녹이더니 꺼떡꺼떡 조는 것이였습니다. 이 틈을 타서 우리는 아래'마을로 뛰여가 인민 군대 형님들께 련락하여 놈들을 깜쪽같이 잡았지요.

우리는 이 날 어쩌나 기뻤던지 몰라요.

그러나 놈들에게 학살 당한 맏형을 생각할 때 이 적은 성과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전투가 시작된지 이레째 되는 날이였어요.

이 날 우리는 나무'군 차림으로 봉화재에 올라 갔습니다.

이 날따라 사방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 보려고 높은 나무에 기여 올라가 사방을 휘—둘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퍽》하고 큰 소리가 나더니 다섯 개의 철갑모가 숲 속에서 쑥 삐여져 나오질 않겠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얼른 내빼려고 나무에서 막 내리 뛰려는데 벌써 놈들은 총을 겨누어 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놈들은 우리를 숲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숲 속에는 미군놈들과 괴뢰군 약 200명 가량되는 대렬이 머물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끌고 온 놈들께서 무엇인가 보고를 받던 괴뢰군 장교놈이 우리에게로 다가 와서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어데 사느냐? 몇살이냐? 무엇하려 산에 왔느냐? 인민 군대가 어데 있느냐?》 고 련달아 캐 묻고 나서 우리더러 봉화재를 넘는 길 안내를 하라고 했어요.

내가 길을 안내할테니 저 애는 여기서 나무를 하게 놓아 달라고 창수를 가리키며 말했더니 장교놈은 선듯이 좋다고 했습니다.

—옳지! 이 놈들이 정말 우리가 철부지 나무'군 아이들인 줄 아는구나 네놈들을 죽음의 구렁으로 몰고 가마! —나는 이렇게 속으로 웨치며 창수에게 인민 군대 형님들께 련락하라고 눈짓을 하고는 놈들을 봉화재 골짜기로 끌고 내려 갔습니다.

봉화재 골짜기는 3면이 높은 령마루로 둘려 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봉화재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창수는 곧장 인민 군대 형님들께로 줄달음쳤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 놈들은 바로 그 때 봉화재 뒤'산에서 인민 군대에 포위된 자기편을 구해 보려고 인민 군대를 불의에 습격하려 떠난 놈들이였답니다.

나는 놈들을 점점 깊은 골짜기로 끌고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민 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련락간 창수가 도중에서 잘못 되지나 않았는지 나는 가슴이 몹시 안달았습니다.

골짜기도 거의 끝나 갈 때였습니다.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며 따라 오던 놈들은 쉬여 가자고들 했어요.

옳지 됐다! 이렇게 생각한 나는 령마루로 오르는 험한 길을 찾겠노라고 놈들에게 꾸며 대고 슬쩍 숲 속으로 빠져 들어 갔습니다.

그러자 요란한 일제 사격 소리가 골짜기를 뒤덮는 바람에 나는 정신 없이 바위틈에 가 백였습니다. 내가 도망치는 기미를 채고 놈들이 사격하는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것은 창수의 련락을 받고 깜쪽같이 봉화재 3면으로 골짜기를 포위한 인민 군대 형님들이 놈들의 머리 우에 들씌우는 일제 사격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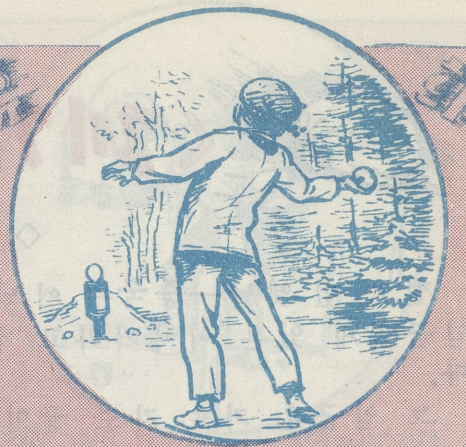
불의 습격을 받은 놈들은 방향도 찾지 못하고 되는 대로 허튼 총질을 해 대며 갈팡질팡하다 몽땅 쓰러지고 말았지요.

골짜기로 내려 오는 인민 군대 형님들을 향하여 나는 만세! 만세!를 웨치며 뛰여 갔습니다.

인민 군대 형님들 속에서 창수도 나를 향해 뛰여 왔습니다.

대대장 아저씨는 나와 창수의 손을 굳게 잡고 《어린 용사들 참 용감했소》 하고 칭찬하면서 수첩을 꺼내여 《량견 인민 학교 5학년 리 명훈 15세, 량견 인민 학교 4학년 마 창수 14세》라고 가지런히 적고 《용감한 두 소년에 의하여 적장병 200여 명을 소탕함》 이라고 써 넣으셨어요.

그 후 창수와 나는 각각 국기 훈장 3급을 수여 받았습니다.

눈덩어리 마치기

(1) 유희장 및 유희 조직

1, 병 3개를 가지고 그림과 같은 유희장을 만든다.

2, 유희자들을 같은 수로 3편으로 나눈다.

3, 각편의 유희자들은 출발선을 향하여 3렬 종대로 정렬한다

(2) 유희 방법

1, 출발 신호에 의하여 각편의 선두 유희자들은 눈덩어리 던지는 장소에 가기 전에 여러 개의 눈덩어리를 빚어 가지고 달려 간다.

2, 눈덩어리 던지는 장소까지 간 각편의 유희자들은 눈덩어리로 5m 앞에 놓여 있는 병 우의 눈덩어리를 맞히여 떨어 뜨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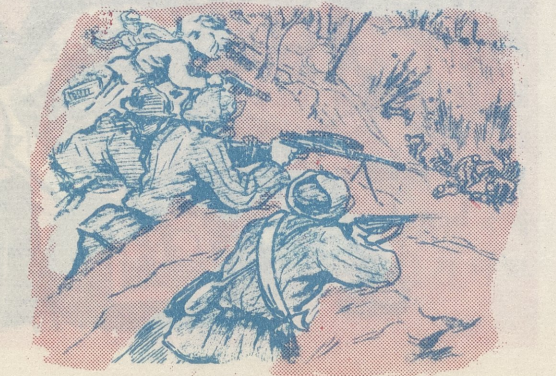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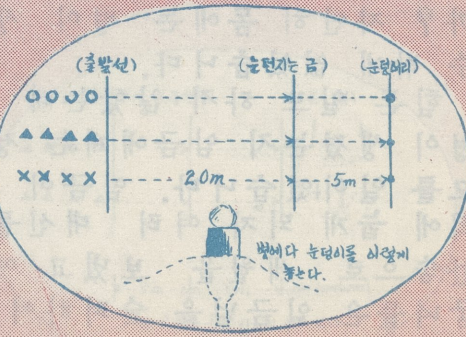
3, 병 우의 눈덩어리를 떨어뜨린 유희자는 병 있는 곳에 달려 가 처음 눈덩어리만한 크기의 눈덩어리를 다시 빚어 병 우에 놓고 출발선에 돌아 와서 다음 유희자와 손'바닥 치기로 인계하고 뒤에 가 선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희는 계속된다.

4, 그리하여 빨리 끝난 편이 승리한다

(3) 주의할 점

1, 눈덩어리는 반드시 눈덩어리 던지는 장소에서 던질 것.

2, 눈덩어리 던지는 수는 제한이 없고 병 우의 눈덩어리를 떨어뜨려야 다음 유희자가 유희를 계속한다.

3, 병 우의 눈덩어리는 크게 하지 말고 유희자들의 주먹만 하게 할 것.

《제기》의 력사

◇려 환 욱◇

멀고 먼 옛날—중국의 어느 한 임금에게 있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임금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넓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야말로 영화를 누리며 살았답니다.

넓다란 궁궐 정원에는 란초며 모란이며 국화며 철에 따라 피는 가지가지의 꽃들이 만발하여 마치 꿈나라와도 같았답니다. 거기엔 저 북방 눈, 얼음 속에서도 피는 흰꽃도 있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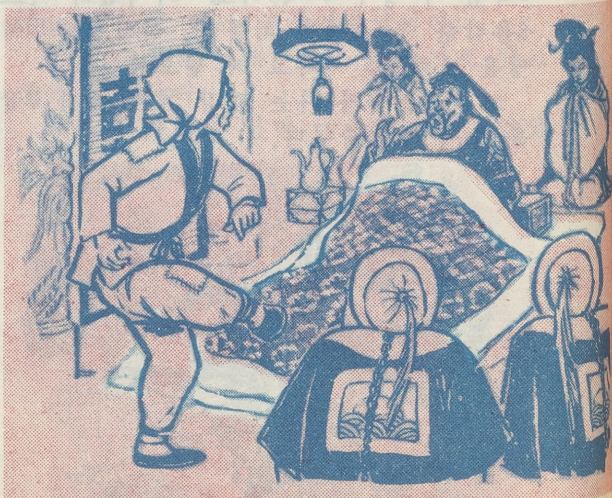
높다란 궁궐은 온통 대리석으로 장식되여 있었고 그 대궐 한가운데는 보석으로 장식된 옥좌가 놓였답니다.

임금은 늘 하는 일 없이 이 옥좌에 앉아 세월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봄날에도 맑은 여름날에도 쭈룩쭈룩 비 오는 날에도 펑펑 눈 오는 날에도 그 많고 많은 신하들을 부려 가면서 옥좌에 앉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자연히 몸에는 병이 생길수 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병이 생겼는지 임금에게는 정말 모를 일이였습니다. 임금이 병석에 눕게 되자 여러 대신들은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고 여러 궁녀들은 임금님을 슬퍼하여 눈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바삐 각국에 사신을 보내여 좋은 약이라면 돈량을 아끼지 않고 사들여 대접해 봤으나 병은 점점 더해만 갈 뿐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밖에서 땅을 가꾸던 한 농부가 제나라 임금이 어찌하여 병환에 눕게 되였는지를 알았습니다.

농부는 임금의 병을 고쳐 드리겠다고 궁궐로 찾아 왔습니다.

여늬 때면 될 소립니까. 그러나 약이란 약은 다 쓰고 이름난 의사는 다 보여도 병은 점점 더해 가는 판이라 농부를 임금에게로 안내했습니다.

해'별에 탄 시꺼먼 얼굴을 가진 늙은 농부는 해말간 임금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 보더니 흰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이 병은 전혀 약이 필요치 않다고 보옵니다. 한 자의 천 한 홉의 쌀이면 족한가 보옵니다…》고

이 말을 들은 임금은 펄떡 일어났고 여러 신하들은 그게 무슨 터무니 없는 소리냐고 도리여 타박하였습니다.

《임금께서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잡수신 음식조차 잘 소화되지 못하여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병에는 전혀 약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렇게 아뢰이고 임금으로 하여금 몸에 좋도록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것은 한 자의 천으로 만든 주머니에 한 홉의 쌀을 넣은 《제기》를 만들어 매일 차도록 한 것입니다.

임금은 농부가 시키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제기》를 차면서 몸에 알맞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임금의 병은 차차 나아져 갔습니다. 임금은 두 볼에 련신 웃음을 지으면서 농부를 치하하였습니다.

그 때 농부는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결코 놀고 먹으면 안 되는 법입죠》.

그 때로부터 이《제기》 차기가 유희로 되여 온 세상에 퍼졌더랍니다. 그래 우리 선조들도《제기》 차기를 하여 왔던 것인데 그 것이 오늘 날까지 전해 온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차는《제기》는 벌써 그 때에 생긴거라고 합니다.

유희 팽이 돌리기

1. 유희장 및 유희 조직

ㄱ, 유희자들은 팽이를 준비하고 얼음판 우에 그림과 같은 유희장을 만든다.

ㄴ, 인원 수에 따라 유희자들을 두편으로 나눈다.

ㄷ, 각편의 유희자들은 출발선을 향하여 2렬 종대로 정렬한다.

2. 유희 방법

ㄱ, 지휘자의 신호에 의하여 각편의 선두 유희자들은 팽이채를 쥐고 중간선으로 달려 간다.

ㄴ, 중간선까지 달려 간 유희자들은 그 곳에 놓여있는 팽이를 돌리면서 장애물 (1M 간격을 두고 세워진 곤봉들)이 있는 곳까지 자유롭게 몰고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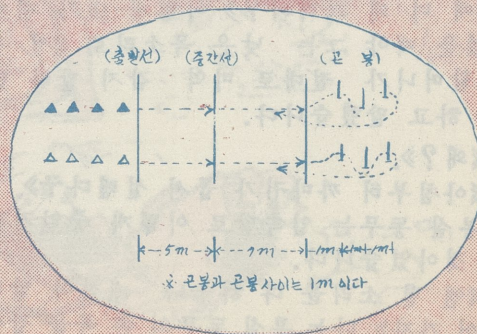
ㄷ,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는 몽동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팽이를 돌리면서 몽동이와 몽동이 사이를 지나서 돌아 온다 (돌아 올 때는 갈 때와는 달리 장애물을 거치지 않는다).

ㄹ, 중간선까지 온 유희자는 돌아 가는 팽이를 그 곳에 남겨 두고 다음 유희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출발선으로 달려 간다.

ㅁ, 출발선에서 팽이채를 인계 받은 유희자는 곧 중간선으로 달려가 팽이를 돌리면서 먼저와 같이 유희를 진행한다.

ㅂ,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희를 계속하여 먼저 끝나는 편이 승리한다.

3. 주의할 점

유희를 진행하는 동안에 몽동이를 넘어뜨리거나 돌던 팽이가 멎게 되면 중간선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새 학기가 갓시작된 어느 날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우리는 어제 계획했던대로 강'가에 나가 몸을 깨끗이 씻기 위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푸른 하늘은 유달리 높아 보였으나 해'빛은 여전히 따가 왔습니다. 우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손 목을 잡고 유쾌히 노래 부르며 강'가로 떠났는데 웬 일인지 김 봉실 동무만은 아까와는 달리 얼굴에 흐린 빛을 띄우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봉실아! 넌 어데 아프냐? 왜 그러구 섰니》 내가 이렇게 물어도 그는 머리만 흔들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 보자고 해도 그는 잠자코 있을 뿐이였습니다.

동무들은 미처 강변에 가 닿기 바쁘게 발가숭이가 되여 물 속으로 풍덩풍덩 뛰여들기도 하고 어떤 동무들은 아래'도리를 거두고 물 속에 들어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봉실 동무는 여전히 걱정 어린 빛으로 강변에서 어물어물하고 있을 뿐이였습니다.

《애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내가 재차 물었을 때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저 우리 할머니가 절대로 미역 감지 말라 했어》 하고 말했습니다.

《왜?》.

《아침부터 까마귀가 몹시 설렌다구》.

봉실 동무는 입속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였습니다.

《앤 별 소리를 다 하누나 괜찮아 빨리 들어 가자》. 나는 봉실 동무의 손 목을 잡아 끌고 막 물'속으로 들어 갔습니다.

《아니야 까마귀가 울면 재수 없다고 했어》 이렇게 말하며 주저주저하던 봉실 동무도 정작 물 속에 들어서서는 동무들과 물 장난도 하며 신이 나 했습니다.

얼마 후에 분단 동무들이 강변 모래밭에 삥 둘러 앉아 오락회를 가지게 되자 나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무들!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그러자 동무들 가운데서 리 지화 동무가 얼른《정말 까마귀가 자꾸 울면 재수 없대》 하고 떠들어 댔습니다.

지난 번에 《도깨비불》이라는 모임을 가질 때도 리 지화 동무는 도깨비불을 보았다고 끝장 우겨댔고 봉실 동무는 컴컴하고 우숙진데에는 도깨비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머니한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들은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열흘 동안에 까마귀가 우는 날과 안 우는 날에 있은 일들을 제가끔 적어 두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점심 시간에 봉실 동무는 나에게 찾아 와서 이렇게 소근거렸습니다.

《정말 우리 할머니는 거짓 말을 했어, 까마귀 우는 날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 글쎄 안 우는 날에 연필을 잃기도 하고 넘어져서 발을 다치지 않았겠니…》.

나는 곧 이 이야기를 가지고 벽보 주필 동무와 의논하고 벽보에 지상 토론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 일은 생각 밖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이 일이 있은 후부터는 까마귀는 자기 대로 우는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아직도 당터니 노사터니 하면서 해마다 가을이면 제사를 지내던 빈 집과 나무가 서 있는데 앓는 일이 있거나 집 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곳에 찾아 가는 어른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년단원들 속에도 월림 고개를 넘을 때면 국수당이라고 하면서 울긋불긋한 천쪼박을 매 단 나무에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침을 뱉거나 돌맹이를 던지는 버릇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 선거된 우리 분단 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소년단원들 속에 남아 있는 이런 비과학적인 생각을 없앨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의논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0월 7일 분단 계획에 의하여 우리는 소년 신문에서 《순명 동무와 귀신 단지》《애기 무당이 되였던 이야기》《어머니가 버린 십자가》 등을 가지고 이야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날 모임에서 김 창식 동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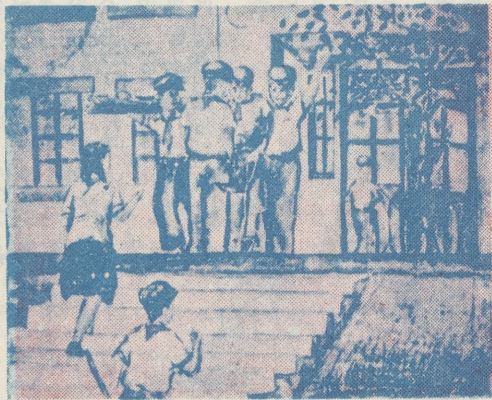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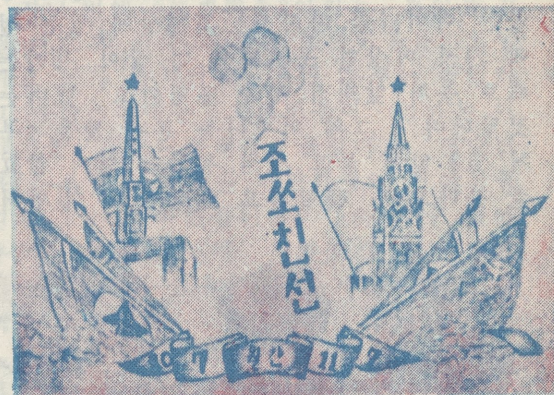
바로 7월 칠석날이였습니다. 창식 동무는 어머니를 따라서 묘향산에 있는 절에 가서 이상한 옷차림을 한 중이 시키는 대로 부처 앞에서 절을 몇번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돈과 쌀을 《부처'님》 앞에 놓고 창식 동무가 앓지 않고 잘 자라도록 해달라고 몇번이고 빌면서 절을 하더랍니다. 그 때 일을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또 무시무시 한 생각도 난다고 하면서 그는 이제야 그런 것이 쓸데 없는 헛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는 어머니도 그런 곳에 다시는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런 일은 비과학적이며 돈과 쌀을 랑비하는 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분단에서는 그 후 방과 후 시간을 타서 선생님으로부터 미신과 종교는 어떻게 생겨 났으며 누구에게 리익을 주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때부터 우리는 비가 왜 오는지조차 모르고 다만 귀신의 조화로만 알던 먼고 먼 옛날에 생겨난 미신과 종교를 오늘 처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여 달 나라에도 려행하게 될 우리들이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북도 향산군 향산 인민 학교 대
제5 분단 위원장 김 정 자

독자의 그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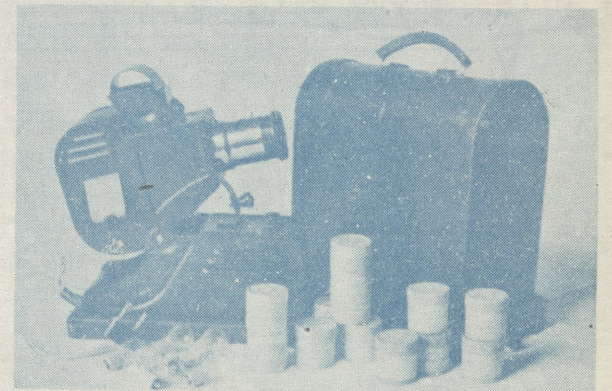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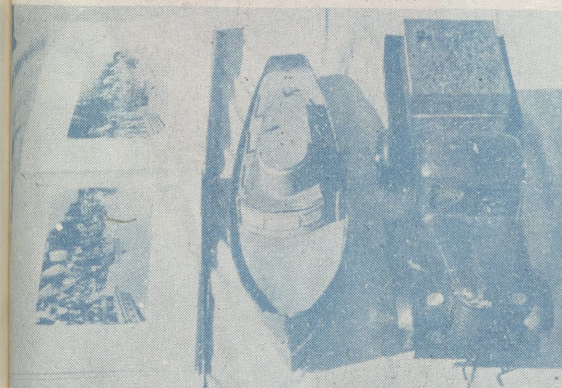
«친선» 평양 제14중학교 2학년 안 무일

«쏘련의 벗들로부터 편지가 왔다» 개천 초등학원 4학년 박 영

«조쏘 친선» 청진제13 중학교 1학년 리 근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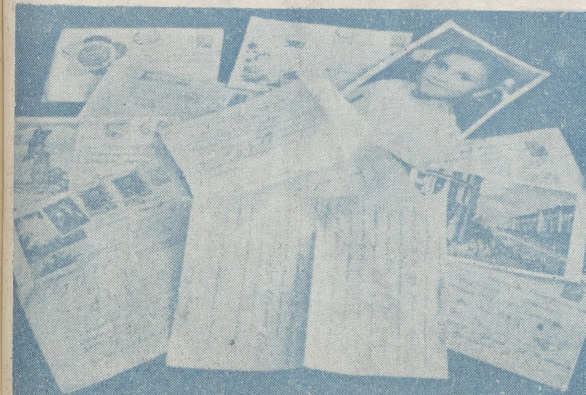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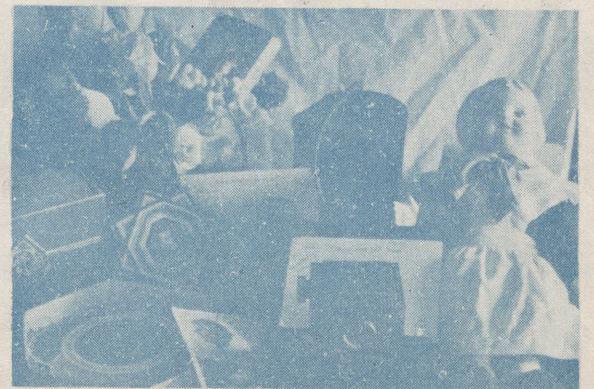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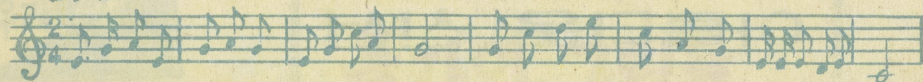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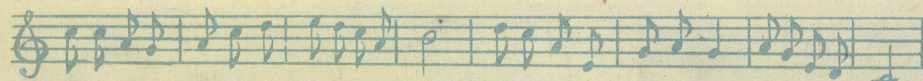
편집 위원 김 주현(주필) 김 칠성 리 원우 리 동무 송 정우 신 진균 최 윤호

1957년 11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7년 11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7년 제 11 호 (총98호)
발행소 민주 청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685 값 25원 80,000부 발행

아름다운 친선

평양 쏘련인 학교 삐오네르들에게 보낸 평양 제 40 중학교 소년단원들의 정성어린 선물.

모쓰크바 233 중학교 삐오네르들로부터 평양 제2 중학교에 보내온 환등기와 그의 부속품들.

모쓰크바 삐오네르 궁전과 기타 여러 학교 삐오네르들로부터 평양 제40 중학교 소년단원들에게 보내온 각종 공작품들과 완구들.

평양 제 1 녀고중 소년단원들이 쏘련 삐오네르들에게 보낸 선물과 편지.

평양 제 1 녀고중 소년단원들이 쏘련 삐오네르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편지.

빼오넬가
보통 속도로
어깨동무 세동무 빼오넬동 무 우리들은 나 어린 프로레타리 야
올막 쫄막 동무야 다나오너 라 골목 골목 모여서 한뭉치되 자
1. 어깨 동무 세동무 빼오넬 동무
우리들은 나 어린 프로레타리아
올막 쫄막 동무야 다 나오너라
골목골목 모여서 한뭉치 되자
2. 또또또또 공나팔 빼오넬 나팔
공장에서 농촌에서 높이 부르자
굶주리고 헐벗은 우리 동무들
두팔 걷고 나와서 진을 치잔다
3. 어린 병정 신병정 빼오넬 병정
우리들은 나어린 프로레타리아
온 우리 동포야 다 나오너라
붉은 기'발 아래서 싸워 나가자